朝鮮日報 夕刊 七日(金)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組閣難中의佛國

라발氏、條件附로 于先、組閣受諾

피에르리海相은組閣失敗

急進社會黨首도拒絶

【電通巴里六日發】피에르리氏의組閣이 失敗되기때문에 르부랑大統領은 再次下院議長 뷔송氏에게 組閣을 懇請한바 뷔송氏는 此를 拒絶하엿다 따라서 르부랑大統領은 에리오無任相을 招致하고 錦權을議한 結果再次 라발氏에게 組閣을懇請하기로決定하고 同氏에게 此를交涉하엿든바 라발氏는 에리오氏에 代身하야急進社會黨首 이본·데르보氏를推薦하야 萬若 氏가拒絶하면 考慮하겟다」고回答하엿다 따라서 大統領은데르보氏를 招致하고組閣을依賴하엿다 데르보氏는 自己는 軍長의經驗이잇스나 財政上經驗은업슴으로 그職任에當할수업다는理由로 辭退하엿슴으로 大統領은 六日午後七時四十分라발氏의 來訪을求하야 退迫事情을述하고 組閣을要請하엿든바 라발氏는 社會黨과 急進社會黨과 協議한다음 七日午前中에 可否間 確答을 行하겟다는條件을 附하야 于先組閣을受諾하엿다 (寫眞은라발氏)

【電通巴里六日發】라발前外相의組閣失敗를뒤이어 組閣을委囑바든 피에르리前海相은 五日夜來組閣에 狂奔하엿스나 그亦失敗에歸하야 六日르부랑大統領에게 組閣을斷念하다고 申出하엿다

【巴里七日發聯合】라발外相은 엘리제宮을 退出함에當하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刻下重大時局에 當面하야 大統領의 委囑을 拒否하는것은 公人의態度가아니다 余는即時 組閣에 邁進할 決意를갓고잇다

各領袖暗默裡에 『라발』內閣을支持乎

【電通巴里六日發】再次組閣委囑을바든 前外相라발氏는 六日午後九時半부터 外相官邸에 各派領袖를招致하고 閣卓會議를開하야 아르부랑大統領과의 會見顚末結果를報告하고 自己의組閣에對한 意思는 頗히單純하다는 旨를率直히述하야 組閣에着手한다는旨를言明하고此에對하야 各派의支持를要請하엿다 此에對하야極左派를除하고 라발氏가 外相을兼攝하고 海相에프랑당氏、藏相피에르에氏 無任相에뤼송、마랑、에리오三氏를 各其任命하자고希望하엿슴으로 라발內閣에對하야 暗默裡에 支持를못한것이라고보인다 會議는午後十時半에 終了되엿는데 라발氏의 代辯者는會議後左와如히말하엿다 急進社會黨은 라발氏를 支持하기로되엿스므로 라발內閣은 事實上成立되엿다 今夜中에는 正式으로 發明할것이다 그리고 六日夜에도 巴里市內의 各處에는 적은때모가이러낫다

라首相組閣完了

【巴里七日午前三時發 至急報聯合】라발新首相은六日夜組閣에大活動을繼續한結果 六日深更에이르러組閣을完了하엿다

佛新內閣의陣容

【電通巴里七日發】라발新內閣의閣僚는 左와如하다

首相兼外相 피에르·라발 (無所屬)
藏相 마르셀·레니에 (急進社會黨)
陸相 사바리
海相(留任) 프란소아·피에트리 (共和黨左派)
空相(留任) 빅토르·도낭將軍
植民相(留任) 루이·로랑 (共和黨)
無任相 피에르·프랑당 (共和黨左派)
同(留任) 에드와드·에리오 (急進社會黨)
同(留任) 루이·마랑 (共和黨)

中國側無誠意 事態重大化未免

【電通北平七日發】何應欽은日本軍의警告에基하야 于學忠의更迭과抗日反滿機關責任者罷免及此等機關의撤退命令과 如한末節的事項으로써 當面의誠意를披瀝하는 것이라하는模樣이나 特히局地問題로서도 奇怪한것은 國民黨部에아직一指도건드리지안코 또中央軍撤回는 中國側의 形便이라고 稱하고잇스며 中國側의 誠意는 認定하기不能하다하야 事態의重大化가 憂慮되여잇다

陸相은、어데까지 現地解決主義

끗까지日本의要求를貫徹 强硬態度에國府唐慌

【湯崗子六日發聯合】來滿中인林陸相에對하야 六日 岡田首相으로부터 거듭 來十七日內閣審議會初會合을開催하기로되엿슴으로 速히歸京하라는 旨를要望하여왓는데 此에對하야 林陸相은 十六日 豫定대로歸京한다고 返電하엿다 首相이如斯히再三陸相의 速히歸東하기를懇望하여온眞意는 北中問題에關하야政府가 저大使館昇格問題로부터硬化한 陸軍의 態度를憂慮하야 一日이라도速히 陸相의 歸東을要望하는것이라고 推測된다 그러나 林陸相은 今回의 北中問題에 對하여는 어데까지 日本의 駐外官憲의 實質的排日行爲를 根絶케할要求에 對하야 全幅的支持를與하야 中國側이誠意를갓고 排日行爲를是正하기까지는 斷乎日本의要求를 貫徹할려고 此에對하야 萬般遺憾업는措置를 講究케하고잇다

即發危機안두고 ★★★ 駐屯軍重要會議

【天津七日發聯合】北平情勢緊迫에 鑑하야 駐屯軍司令官梅津中將은 七日午前九時부터 酒井參謀長以下軍首腦部 大使館附武官磯谷少將 山海關特務機關長 儀峨大佐 北平駐在武官高橋中佐等을 司令官邸에招致하고 重要對策을協議하기로되엿다 事態는바야흐로 即發의危機에잇는바 全市의神經은 모도 駐屯軍首腦會議에 集中되여잇다

天津市長更迭

【南京六日發聯合】國民政府는六日正式으로 天津市長의更迭을發表하엿다

免天津市長 張廷諤
任天津市長 駐平政務整理委員 王克敏

따라王克敏氏가 就任하기까지는 商震氏로代行케할터이다

現地軍部硬化!

期限附最後通牒發送?

【電通上海七日發】日本軍의要求에對한中國側의態度가 極히無誠意함으로 中國側이依然誠意를보이지안는時는 日本軍은斷然期限附最後通牒을發送하고 自衛手段을取하는수밧게업다고軍部는俄然硬化하엿다

話題解說 印度新憲法案

波瀾曲折을겪든 印度政府改組法案은 지난五日 英國下院本會議에서 可決되여 即日 上院에回附되엿다한다。이法案이 上院을 通過함에따라 七月까지에는 法案이完全히 成立될터로 印度國民會議派로서보면 完全한 自治를 目標로하든 過去의 鬪爭目的을 充足할만한것은아니나 이것이 濠洲、加奈陀等 自治領形式에 따라짐이큰때문이다。그러나、英本國政府로서 본다면 一九二〇年以來 團欲的으로 展開되든 大規模의 印度民衆의 反英運動을 『讓步』의形式으로써 合法的으로 阻止하는데 成功하는셈이다。

◇

今回下院이 通過한印度新憲法(即印度統治法改正法案)은第二次英印圓卓會議의結果에 依하야 一九三三年三月十七日에發表한것을 基礎로 其間 勞働黨議員및 처칠氏一派의 猛烈한反對를바더가면서 그審議委員會가 迂回曲折、改訂에改訂을加하야가면서 英國保守黨의 … 바、그內容은、英領印度를十一州로分割하고 이에土候國을加하야 聯邦組織으로하고 總督은 國務大臣의 監督에依하야行政權을 掌케함으로써 總督의權限을 縮少하고 議會는 土侯國을除外하에는 다選擧制를採用하야 印度人에對한 廣汎한 自治를 認定하는一方 總督에게는 國防、外交及 宗敎에關한權限을 留保하고 또 (一) 印度의 治安維持 (二) 聯邦의 財政的安定及 信用의保障 (三) 少數民族의 利益保障 (四) 官吏의利益保障 (五) 各土侯國의 權利保護等을 特別事項으로하야 大臣의輔弼을 要치안는事項으로 制度運用의 破壞에對한 非常手段을 賦與키로된것이다。

◇

이러한 內容의 新憲法에 對하야 印度國民會議派가 滿足하지안는것은 事實이지만 印度政府의 高壓政策에 屢屢한抵抗의 態度를 取할수업게 된 그들은 昨年四月六日 델리의 同派大會에서 스와라즈黨을復活하야 非常事不服從運動을撤去하고 中央立法 議會選擧에 參加키로 決定하야 간듸氏도 이에 同意하야 引退케되엿슴으로 當分間 印度의 情勢는 이新憲法에 依하야 小康狀態를 維持한다할것이다

于氏、도리혀昇進

北中駐在日本官憲極度로憤慨

蔣介石打倒態度를固持

【電通上海六日發】北中問題를惹起한 責任者于學忠은 日中關係常化의 道程에잇는今日 免職左遷케되리라고 豫想되든바 事實은 도리혀 河北省一省의主席으로부터 四川、陝西、甘肅三省의 剿防司令이라는地位로昇進식혓다 右事實은 蔣介石氏의 命令으로 日本에 對하야各種侮日抗日行爲를 行한데對한 論功行賞을 意味하는것으로 張學良의 奔走도 奏効되엿스며 蔣氏自身은 問題를 解決할 誠意가 秋毫도업시 도리혀 日本軍을 愚弄하는態度로 보임으로 北中駐屯官憲은 그無誠意한 擧措에對하야 極度로 憤慨하고 反日侮日의態度를 改善치안는限어데까지 蔣氏를討치안코는 안될것이라는 態度를 固持하고잇다

南京駐在雨宮武官 强硬態度를傳達

軍部의意思를國府에

【南京六日發聯合】當地駐在雨宮陸軍武官은 六日午後外交部에唐有壬次長을 訪問하고 河北問題에對한 國民政府의誠意가 보잘것업다는것을 痛擊한後六日陸軍中央部로부터 駐外軍部에 對하야發한 軍部訓令에基하야 日本側의 斷乎한態度를 傳達하엿다

【南京六日發聯合】廣田外相으로부터軍의最後의決定을 聽取한駐日大使蔣作賓氏는 形勢가意外로逼迫되엿슴을 알고 國民政府에그뜻을通告하야왓는데 이報告를接한 汪精衛氏는日本外務省에바라고잇든唯一의希望도 切斷되여極度로狼狽하야 直時行政院外交部其他要人을招致하고 協議中이다

蘇蒙軍事同盟 密約成立

獨逸新聞의報道

【伯林六日發聯合】벨리너다게블라트紙의報道에依하면 蘇聯政府와蒙古國民共和國政府와의 間에 軍事同盟密約이 成立되여極東赤軍司令官등훈將軍과 蒙古陸相데미드將軍과의間에 이미調印이完了되엿다한다 密約의內容으로同紙에揭載된것은 左와如하다

一、치타로부터外蒙古首都우란바톨호라(庫倫)에 이르기까지定期航空路를開設하기爲하야 蘇聯政府는 外蒙古政府에對하야 一千萬金留의借款을提供한다
一、外蒙古政府는 東亞에잇서蘇聯機關이 行하는共産主義宣傳을 妨害치안키를 契約함
一、蒙古國軍에 對한 蘇聯軍事教官을 增員함
一、緊急必要한 境遇에는 蒙古政府는 赤軍의 國內全領域通過를 容易케함
치타及우란바톨、호라間鐵道敷設工事에 即時着手함

그리고 同紙는 右協定內容에對하야 左의結論을 下하엿다 本協定에 依하야 蒙古政府는事實上 蘇聯政府에對하야 必要한 境遇에는 何時에는 外蒙을占領할 權利를 許與한데不外하는바 이와갓치 日本의滿洲國進出에 對하야 側面으로부터 障壁을 設하게되엿다

米、重大關心갓고

事態의推移를注視

【電通華盛頓六日發】北中時局의 重大化에對하야 米國國務當局은 『아직公式批評을發表할時機가 안이다』라고 言明을 避하고 잇는데 重大危機가 迫到되엿다는것은감추려하지안코 官邊에서는 極히 憂慮를 抱懷하고잇스며 重大한 關心을갓고 事態의推移를 凝視하고잇다 그리고目下가장念慮되는것은 日本이軍事行動을 이르켜北平地方一帶를 占據하지나안흘까하는것으로 그러한境遇에米國이取할對策은아직何等의決定이되지못하엿스나 아마外交機關을通하야 强硬한對日意思表示를 發할境遇도잇스리라고觀測되며 또그러한境遇에는英國도어와步調를 가티하게되리라고解釋되는傾向도만타

北中交代部隊 七日東京出發

【東京電話聯合】陸軍省公表第一師團編成의 北中交代部隊는七日午後九時七分品川驛發大阪으로부터 … 北中에向할터이다 그리고 第四師團의北中交代部隊는七日大阪을 出航하야 現地로向하엿다 그리고 第七師團編成部隊도 七日大阪을航하야 門司에서 第十二師團編成의 部隊와合하야 現地로 向할터이다

八面鋒

◇프랑스內閣의 後任으로 뷔송이四日天下 라발、잔·누네、피에르리等의 領袖가 流產하고 또다시 라발에 도라와 겨우 組閣에 成功。
◇難產에 難產을 거듭하고 出生한 라발內閣、果然 議會의 鬼門을 通過할까?
◇佛國의 일이라 그前途는 두고 볼일。
◇北中의 風雲漸急。外國商人은 벌서부터 撤退開始。
◇맥도날드英首相 七日로 깨끗이掛冠。印度憲法을 通過시키기 애를태운탓。
◇그러나 保守黨으로부터나 印度人으로부터나 다 조흔 소리못듯으니 무슨 八字

文化私議(三)

第三次向學熱

先驅者들의關心事

安在鴻

無何先生 足下

昨今朝鮮人社會는 大體로悲觀材料가 만흔뿐인데 퍽한가지 鄙者의着眼할點은 今春京鄕各學校 入學時期에잇서 男女各級을通하야 入學志願者가 동떼게만헛든點입니다 普通學校에는 地方僻地 特別한地域을빼어노코 해마다學齡兒童이 머리자고럼비는 이론바收容難에빠지든터이지만 今年에는中等以上 各學校에서도 男女를아울러大體로 募集數에對한三四倍乃至 六七倍의 志願者를 보게된 形便이니 이는已未直後膨脹하엿든 向學熱에 견줄만한狀況으로 注目되는일입니다 그原因은아마 數種이겟서서 昨今數年 米穀價가올른農村中小地主 흡은자칫 窮迫한小作農等의 收入이 一時에부른關係도 잇슬것이오 明年以後까지 두고보지안코면 안될바이나 地方人士와 其他學父兄等의 意思를 實地로 綜合하여보면 實로 留意할理由가 잇는것이니 나는 그發生形態로보아 第三次向學熱이라고命名하고 社會一般의 기픈關心을 끄을려합니다

×

朝鮮에잇서 輓近數三十年동안 歷史的으로 許多한 波瀾을겻거온것은 더말할것 업시 光武 隆熙의時代 京鄕各地私立學校의簇出하아올러 向學熱이 날로뛰어 昂騰하엿스니 이것은 當時오히려 大義名分을 추종하면서 民衆에게 自由로 進取思想을 鼓吹하든時代이라 民衆의向學熱도 자못와락 이러만나든 形勢이엇스니 그氣勢가 매우컷슴니다 그러나庚戌의變局은 必然으로 휩쓸겨지는듯이 그絶望的인 衰頹를 보앗는것이니 民衆心理推移의過程으로보아 免치못할일입니다 己未運動이 잇슨後朝鮮의 向學熱은 새로히 未曾有의 形勢이엇스니 非常하게 衝動된 民衆의氣魄이 무엇이고 용켜쥐려하는 生存意慾의 엉성한途程에서 자못荒漠한孿孿을 하엿든것이오 中途에 經濟恐慌조차 차차深刻하게되는데 修學한結果 採算上의所得으로는 오죽 不生産的인 狀態이것을 버슬수가 업섯스니 向學熱이 두번째 식어집박게 업섯든것입니다 專門學校入學生率은 간신히 一割五分만하여서 一二三割을 바라보기어렵고 專門卒業의 靑年으로도 就職就業의 뒤채여 어려움이 그야말로 登龍門하기보담 쉬지 아니하니 눈뜨고뻔히 밀리고 천더군이되는꼴을 보는바인지라 『배우면 무얼하나? 드린學費도 차저먹을수업다』는 一種의 生活觀念으로박게 아니되든것입니다 이래서 第二次 己未年代의 向學熱도 어느덧 슬어저가는 景況의 꼬리ㅅ본으로 희미하고 열버저든것입니다 그러나것이 昨今數年에와서 向學熱은 第三次的으로 되노피진것입니다

×

그理由인즉 매우單純한것이니 朝鮮人도살어야 겟다는것이오 배워야살겟다 는것이오 배운後에 나으리 영감이되거나 會社員이나 銀行員이되거나 풍성풍성한 月給장이 되겟다는것은 우선第二義로 물려야하겟다는것입니다 지금까지朝鮮의 文化向上의熱이 여간느리지안한것은 첫재時局의大不利가 아모民衆的意氣 및興味를 鼓舞하지안는것이 하나다 그러나 輓近의 朝鮮人은 時局이 여러번 激變하고 內外의 見聞이 實로生存및生活의問題를 再認識하게되는까닭에 비로소 배워야살겟다는 眞摯한熱願을 하게되는것입니다 天下萬事는 生活化하는데서 비야흐로 壯圖에서 심여나는 眞正한 出發이되는것이니 이번의 第三次的인 新向學熱은 잘이(吹打)를 빼고서의 알뜰한 演藝와가리 참으로 外廓의喧囂는덜고서의 까깐한 覺醒이라고 觀測합니다 朝鮮의 責任잇는 先驅者들은 기피기피 留意關心할바입니다

北中問題解決은 中國의滿洲承認

天津에到着한磯谷少將談

【天津七日發聯合】七日午前七時五分着列車로 天津에到着한磯谷少將은 左와如히말하엿다 今回北中에서 이러난事件으로 蔣介石氏의 二重政策이 完全히暴露되엿다 蔣介石氏는十數年前부터 自己의獨裁를 達成식히기爲하야 各種秘密結社를 私物과如히 操縱하여왓다 最初는廣東으로부터 始作하야南京事件 濟南事件 最近에는滿洲事件 上海事件에依하야 이것이益益熾烈하게되엿다 今日의事件도 獨裁實現의 不純한手段이다 蔣介石氏는 이秘密結社를 暗躍식혀 現在의 地位를 獲得하엿스나 如斯한存在는 日中의 平和를 阻害하는것으로 現政府內에 잇서서도 蔣介石氏의 이二重政策을 非難하는 黃郛氏나 天津市長王克敏氏나 蔣氏의政策이 改善되지안는以上 北中에 進出치안캣다한다 勿論希望하는것은 全國으로부터 此等秘密結社의 解散을行하는것인데 될수잇스면 北中에서만이라도 이것을撤退식히기바란다 그때문에는 日本이 實力을行使할必要도 生하게되다 또이것을契機로 滿洲問題의解決을 促進하지 안흐면안되다 解決이라는것은 中國의 滿洲國 承認이라는것은 勿論이다 여기서 비로소 明朗東洋이實現하게되다 그런데蔣介石氏는아직 單純한北中의人事異動쯤으로 當面을糊塗하야自身進出할誠意를披瀝치안흐나今回의事件에當하여서는 東京이나 關東軍이나中國現地의 意見은完全히 一致되여잇슴으로 어데까지든지目的貫徹에 邁進할決心이다

人事·集會

▲李鍾麟氏 禮山、瑞山等地의講演를終了하고六日夕車로歸京

奇人神談의主人公
東洋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姜南月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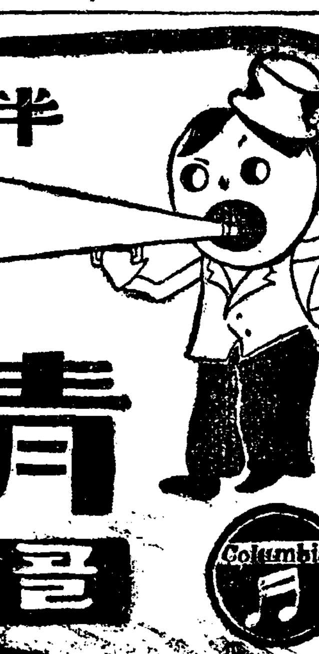
姜南月觀相所

自轉車의村市
代理店募集 目錄進呈

矢野テント
大阪 東京

京城 金 合資會社 杉山商會
金銀分析所 金地金賣買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一番

ギターはモンタノ印
レコードケースはスタンダード印
名古屋 帝國発明社



姜弘植
(레코-드一五四 四〇六一一〇)

絶讚! 絶讚!
포리도-루
流行歌와新民謠

流行歌 王平詞 林輝溪曲 靑春을차저서 王壽福 B面 沙工의설음 金龍煥 19142
流行歌 王平詞 阿部武雄曲 國境의밤 金永吉 B面 젊은이의봄 金龍煥 19185
新民謠 王平詞 李冕相曲 乘情歲風 鮮于一扇 B面 그리운아리랑 19186
新民謠 迎春賦 鮮于一扇 B面 노리개타령 19148

辭典拾册 合本 タダの 金一圓
法律百科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字くず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式辭演說辭典 修養格言辭典 文章百科大辭典 日常書簡大辭典

現代出版社 發賣元
特別景品 昭和十年用 模範日記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產婆 金奉允
入院隨意 診察

天候不順한昨今에 畿內에惡疫大猖獗
昨年同期의發生數보다는倍나增加
京城에만患者近二百

천명하여야할 신록의 천공에짙풍쥐우가 자주왕래하야 작금의천후는 일체면량성을 일허버리자 이기회를타고 발호하는것은각종전염병균이다 경기도위생과에서는 오일부터 륙일하오와칠일아츰까지를 기하야 관하이십오경찰서를 총동원하야 일제히관내의 검색을하야 전염병자의상황을 조사보고하게한결과 칠일오전열시현재의 현상은 대체아래와 갓다 경성부내가 적리(赤痢)이십사명 장질부사(腸窒扶斯)륙십사명 파라지부쓰는삼명 성홍열(猩紅熱)이 삼십사명『지푸테리아』이십구명 발진(發疹)『티부쓰』삼십명 류행성 뇌막염(流行性腦膜炎)십명 전부일백구십륙명이오 기타군부는 적리삼십일명 장질부사구십이명『파라티부쓰』일명 성홍열륙명 두창(痘瘡)륙명『지프테리아』팔명 발진『티부쓰』삼십이명 류행성뇌막염오명 전부일백팔십이명 합계삼백칠십팔명의 다수에달하야전년동기에비하면 단연이배를초과하야 고만지 아니한 전염병『이플렌자』시대를 출현하엿다 이는 지난겨울의 랄선적천후의남은에태도 크게작용하야 나타난악현상으로서 위생당국에서는관하각서에 다시지시하야 전염병자의 격리및방역에 진력하도록하고잇다

池雲英氏長逝

백련지운영(白蓮池雲英)씨는 륙일오전여섯시에 시내 가회동(嘉會洞)이십번지 자택에서 별세하얏는데향년이 팔십사세엿다하며씨는조선 화단(畵壇)과 시단(詩壇)에 중신이엿다

送電線窃取한 엿장사大檢擧

【平壤】서선합동전긔회사에서부전긔과에 송전하는강서예비송전선(江西豫備送電線)대도난사건은범인인 전피룩범김원길(金元吉)의일당칠명을 평양서에서 체포하여취조한 결과엿장사를리용하여송전선을 절단절취하여서평양시내에서팔고잇는것이 판명되여이런종류의 엿장사를철저히소탕키로되여 오일오단오날임에돌구하고 대활동을개시하여 오십일명을검거하고엄중취조를 개시햇는데대부분이이사건에 관계한것을자백햇다 그런데 그중에는 선금을 지불하고 송전선을절취해온도록 지불하지까지잇고 고들상하가도엇사 고용상이상의 해위를하지들도 마련천저한 취조를한후 여장사취체에 대하방침을세우기로되엿다한다

男便은失業하고 셋집도쫏겨나
젊은부인음독

▲룩일밤 열한시경에 시내수은동(授恩洞)전의병원(全醫院)에는신사가량이 중태에빠진부인한명을업고와서 치료를청하므로 사정을알고보니 양잿물을마신것이엇다 응급치료를 가햇스나생명이 위독하다 그부인은 지난일일까지 시내수은동(授恩洞)륙번지 모자동차부에잇다가 그만뚜고나온 심중공지수인해잔(閔·세)의 안해 박명애(朴愛)(二五)로서남편이 갑작이실업하우에서 시업에서까지 쫏겨나서 어린아이를 다리고 이처저정하는집으로 도라당기다가 그만세상을 비관하고 자살을하게한것이라고한다

保釋後死亡者 行喪中騷動
형무소압흐로지나가다가 家族이刑務所에投石

【咸興】제이차태평양노동조합사건에피검되엿다가 작년십일월에함흥법원에서 징역오년의판결을밧고함흥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홍배식(洪培植)(二O)은 적년의선병이위독하여 작년십이월에 보석중지하야 출소되여 자택에서치료중보던의일인 사일오후에사망하여 륙일오전구시경 할종중료지로향하여 운상하는도중함흥형무소압흘통과할때에 부모、근친일족이 룹연적무소수부에 대하여뭉쳐하는일방、각하등을던저 수부장구의초자(硝子)십여매를 파괴하는등 형세가자못험악하엿는데 이급보를접한 함흥서에서는 즉시고등계원수명을 출동식켜 친부모 형홍문식(洪文植)등칠명을인치하엿다

川內里에赤痢

【文川】함남문천군천내리(川內里)에는 적리병이 발생하야 인심이 불안하든바 근일에 이르려는 더욱심하야 지금까지에환자는 근십여명에 달한다고한다

會寧對岸和龍에 三萬餘同胞가絕糧
縣當局의救急도紅爐點雪格
進退維谷、그들의慘狀

【會寧】회령대안만주국간도성화룡현(會寧對岸滿洲國間島省和龍縣)관내에는 조선인거주자가『팔만』에달하는바 그중구할은소작으로 근근생개를이여가던중 작년수해와 흉작으로 사만오천여의 리재민을내이엿는데 지방별로보면 삼도구(三道溝)일대 류동(柳洞)일대와 작대곡(作大曲)부근이 제일심하여 현재절량자만삼만팔천여에달한다는바 현당국(縣當局)의 구제도 약간잇섯스나 그것도구우일모격으로 그들은 바금으로가도못하고 멀리고향산천을 향하여 눈물흘리는비참참절한 정경은 참아보지못할정경이라고한다

玖馬百萬長者拉致

【電通하와나六日發】륙일 구마(玖馬)제일의 백만장자라고 하는『안토니오、쎈、니텔』(?)씨는『하와나』교외서『드라이브』를하다가 여섯명의군복입은 괴한에게 엽습을바다 어데로인지랍치되얏는데 그런지 얼마아니되야 몸갑이십만불주천불(弗)의요구서를써서떨아갓든 사람만보내는데 그집에서는 이에크게놀라서 즉시현금은 그딸아온 자에게 수교하얏다

朝鮮語學講演
팔일오후에

팔일오후 네시에수표정(水標町)사십이번지 조선어학회에서는동회관에서 다음과가튼 강연을한다는데 누구나 입장을환영한다고한다
演士 李克魯氏
演題 한글을 바루 쓰고 바루 읽는법

불똥作戲로騷動

오일오후여덟시오십분경에시내종로(鍾路)오정목사백구십구번지허운경(許雲景)의 집연돌의불똥이이웃초가집웅에부터 한참동안불소동을 일으켯섯는데 동리사람들의힘으로 즉시진화되여 곳미처도착한 소방대의 손을빌것도업섯는데 손해도극소 하다한다

天氣豫報
曇時時晴

高氣壓은 小笠原과 揚子江流域에떠저잇는 七五○미리의低氣壓이잇서서 昨日中部以北에小雨가잇섯스나 今朝는大槪回復되엿다 晴曇相半하고잇다明日은 曇天이다
昨日最高 二十三度一
氣溫最低 十三度一
今日正午 二○度

三百餘年前 銃器를發見
咸州郡에서

【咸興】지난달 이십이일 함주군덕산면대덕리(德山面大德里)백모(白某)가 밧가운데 가옥을건축하려고 터를닥든중 우연히땅가운데서 깊이일척팔촌 직경일촌오푼 중량일관여나되는 철제의 원동(圓筒形)철통의 어더는데 거기에는 마려거미침합북청 조승자측 근팔량 (萬延癸未七月 北青造鄕 子丑斤 八兩)이라고 써여잇슴으로 그년대를밀우어보면 거금삼백오십여년전의유물이며 그들의 말을드르면예날총긔(銃器)인듯하다고 하는데함후서에서는 총독부학무과에보닐터이라한다

大門票 아麻사糸 學生用 春紗用 西川商店出張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九七

移民局新設?
大移民計畫의實施와함께
外事課로부터獨立할意向

조선사람의 만주이민에 관한총독부의계획은 십일년도부터착수할예정의계획 자유의두가지이민을 합하야 팔십만명의 대량이민을실행함으로서 본격적사업이개시되게되엿다 그리고 이이민계획이 실시되는날에는 그알선기관으로 자본금삼천만원의대량이민회사도 설립할예정인데현재의 사무분장상 상당한무리를참고서실행준비를맛허가지고 잇는외사과의 진영으로는 장래에는도저히처리하기가 어려울터이다총독부에서는 전긔 이민계획의실행과아울러 이민사업관계사무도 외사과로부터 독립분격식혀이민국신설할 의향을 가지고잇는듯하다 그러고만일 관제상이민국신설이 곤란한경우에는부제(部制)를채용하야 그밋헤이민보도(移民、輔導)의두과를 두게될모양이다 그래서 이민과는이민사업의 직접적실행과 이민회사의감독을 보도과는 재외조선인의 금융 교육 위생 사상취체실시등을 분장할터이다

朝鮮○○黨再建關係 李成哲等判決
六名에게四年以下言渡

【平壤】전선○○당재건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소화칠년칠월부터 구년구월까지 이개년간 경의선위원회(京義線委員會)의 지도원으로 동지의획득과 주의선전 격문산포등에 활동햇다는리성철 (李成哲)(三二)외 륙명에관한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은 륙일오후 복포(福浦) 재판장으로부터 평양 지방법원형사법정에서 다음과가티 언도가잇섯다
▲李成哲 懲役四年 未決日數一千日通算▲金元福 懲役一年六個月 未決日數全部通算▲鮮于煊 懲役一年 未決日數全部通算▲鄭相鎭同 ▲崔鳳祚懲役一年 三年間執行猶豫▲朴龍雲同

昨夜大路에서 婦女金簪强奪

륙일밤여덟시사십분경에 시내내자동(內資洞)일백오십사번지박창순(朴昌順)(三五)이라는부인이가룡동리 일백팔십오번지압권한풀뿌리을지나가는데 뒤로부터난데업는괴한이달려드러서 머리에꼬처잇는사십원가량의순금귀이개를빼아가지고도망하엿다 마침부근을 순찰하든 종로서원이 그부인의『도적이야』하고 웨치는소리를듯고 곳 괴한의뒤를추적하야 격투끄테 체포햇는데그는 수원군대장면병점(水原郡台章面餠店)상백팔십오번지 한길성(咸吉成)(二三)으로서 그밧게도여죄가만허서 방금 계속하야취조중이라한다

文士藝術家統制코저 學務局側隱然注力
작년봄에도간담회를열엇고
八日에도學務局長이또招待

문부성(文部省)에서 제국미술원(帝國美術院)을개혁단행한데따라 이런관제(官製)긔관에반대하는미술가측반대가 맹렬하야세상의주목을 끌고잇는때에다시문부성에서는문예가(文藝家)의단체까지통제하려한다하야 큰충동을이르키고잇다 그런데조선에서도이와비슷한계획이 당국자의두뇌에흐르고잇서이미작년여름에총독부도변(渡邊)학무국장이 일부의조선문사、음악가、화가등을초대하야하로저녁화담을한일이잇섯는데 금번에도 학무국장은 문사예술가 등을 팔일저녁 모처에초대를하엿다 아즉 문예가단체를 조직하야 통제하려는 구체안은 나타난것이업스나 학무국에서는 작년이래 극력이계획의구체화를 도모하야 문예가의통일적단체를 조직식히려고 애를쓰는것은 사실이다 현재도 문사의『클럽』비슷한단체는잇스나소위권위잇는문예가의단체가업다하야학무국에서알선하야 통제단체를조직케한후 이것을학무국에서통제하려는것이다『코론』예술동맹인『캅푸』가당국의 강권에의하야해산되는일방 당국의알선에의하야 조선문사의통일적단체를만들고저함은주목된다 과연이계획은압흐로어떠케진전될는지 알수업다

士兵連日襲來 百餘同胞가歸還
人心極度로不安한咸南對岸
最近에또六名拉去

【咸興】함남도대안 장백현내의토병들이 자주습래하여 주민들의생명재산은 풍전등화와 가튼위험한 지경에 빠지고잇다함은루보하는바어니와 륙일 함남도경찰부에 도달한정보에 의하면십륙도구 천교자 (十六道溝天橋子)방면에 이동하여온 문명군(文明軍)의일당 이십여명중 십여명은 작오일저녁여들시경 십오도구여운작리(十五道溝如雲作里)의이주동포부락에 나타나 동지조선인 장관백(張寬伯)김민길 (金敏吉) 전복현(千福鉉)등 삼명과십삼도구 피호자 (十三道溝皮後子)에서 장진백(張進伯)외 이명도합륙명을 랍거하엿다하며 오일오후팔시 십삼도구월강장 (越江場)으로부터 신가파(新嘉坡)서에래도한 조선사람의 보고에의하면 계동룰명의 토병대륙십여명이 십삼도구시기지부근에와서 경찰원수명을 동시가지에 파견하여 경비상황과 재산가시명을내사하든중 오일오후네시경 무장한토병이명이 동구 신흥리(新興里)에나타나서 조모(趙某)방에침입하여 금품을강요타가 주인조모가불응함으로 권총을발사하엿든바 이런소문이 주민들에게퍼지게되자 민심은 갑자이동요되여 오일오후다섯시까지 조선내지로피난하여온사람만 조선인백여명의다수에달한다 그리고 토병쌍강(雙江)의 부하륙십여명은작사일오후네시경 십사도구벽지세마동(細麻洞)에이래하여 두대로논아 일대는동구고지동 (古至洞) 부근에 또 일대는십오도구대교자(大橋子)방면에잡복중인데오는륙、칠량일간에 긔어히십삼도구시까지를 습격수행하겟다고함으로 동지일대의인심은극도로흉흉하다

小都市駐在所 刑事警察擴充
경부보가잇는주재소에
刑事를配置할方針

경무국에서는 형사경찰긔관의확충을 도모하고저 각도의형사과의독립 또는형사경찰의『쁘럭』(블럭)제획등 가지가지의 계획을세웟스나 모다예산관계로 하나도실현되지못하엿섯다 그럼으로이번에는 적은경비로 형사경찰망의 확충을하고저 순사배치규정을개정하야 주재소중에 경부보가잇는도시에는 형사근무의순사를 둘수잇게한다는것이다 현재군청의 소재지는 아니나、상업이번성하며 인구도이삼천명내지사오천명에 달하는도시에는 경부보가주재하는 주재소가 상당히만흔데 형사경찰긔관은 전연업서 범죄수사에곤란한경우가만흠으로 이번에는 경부보가주재하는 주재소에는 형사를한명씩배치하게되엿다한다

寧邊市民의宿願 大運動場設置
故金氏遺產으로

【寧邊】칠천여의인구를 포옹하엿스며 이개소의 중등학교를가지고잇는 평북녕변읍내에 아직까지『크라운드』설치가 업섯음으로 일반시민은 일대유감으로 생각하든바 금번 고 김창현(金昌賢)옹의 유산삼천오백원을 바든고 평북체육협회녕변지부에서는 고인의유지에의하야 녕변『크라운드』를 설치케되엿는데 부지(敷地)의 구입과설계 기타시설에대하야는 홍재경(洪在璟)씨에게일임하엿스며 완성후에는 김창현과 넘관과가런 녕변시민 일반에공개사용케 하리라한다

運動競技欄

明日부터開幕될 中等庭球爭覇
各校代表팀對陣을決定
八、九兩日佛專코-트

半島中等庭球界의 俊銳를 網羅하야 全朝鮮의 團體的覇權을決할 第一回全朝鮮中等校庭球大會는 中央佛敎專門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아래 明八日 (午後一時入場式)과 九日(午前九時)의兩日間 市內崇一洞 佛專코-트에서盛大히 열리게되엿다 이에出場하는 各校의對陣은七日正午에 同校內에서嚴正한抽籤에依하야 다음과가티 決定하엿스며 同大會委員은 다음과갓다

◇大會委員
▲會長 金斗憲
▲顧問 金敬注 咸秉業
▲委員 池大連 趙鍾相 鄭安城 金海祚 李允祚 張元圭 金龍成 咸亨洙 金三龍 [illegible]九植 崔東旭 金上奉
▲審判 朴成熙 金再雄 金三道 裵成敦 金基興 李聖浩

各校對陣決定
協實 (1) 中央
培材 (5)
養正 (3) 商工 (7)
中東 (4) 普成 (8)
徽文 (6)
二高 (2) 電機
決勝戰

明日
第二回全朝鮮아마듀어拳鬪決勝
明八日午後二時 慶雲洞東一銀行庭球場
主催 朝鮮體育會 全朝鮮아마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京城蹴球團 明日凱旋
아츰八時着

東京서 열린第一回全日本綜合蹴球大會第一次豫選戰에出征하야絕大의威力을보이여 榮冠의覇權을 獲得하고凱旋의途에오른京城蹴球團은 明八日아츰八時京城着列車로 도라오리라한다

山岸、西村各敗
對첵코戰에

【電通프라-그六日發】데杯歐洲조第二回日本對첵코슬로바키아의第二次싱글二試合은 六日當地에서擧行되엿는데 日本은左의成績으로全敗하엿다
라스가(첵코) 6-1 8-6 6-3 山岸(日本)
멘젤(첵코) 6-2 6-3 8-6 西村(日本)

滿洲硬球팀入京
八、九兩日試合

朝鮮新聞社招聘의 滿洲硬球팀松岡監督以下一行七名이 六日午後二時五十五分京城驛着、노조미로入京하야 廣澤旅館에投宿하엿다 同팀은八日午後四時부터 復式九日午前七時부터 單式戰을모다全朝鮮硬球팀과總督府코-트에서對抗할터이라한다

義州에大雨雹
農作物에被害莫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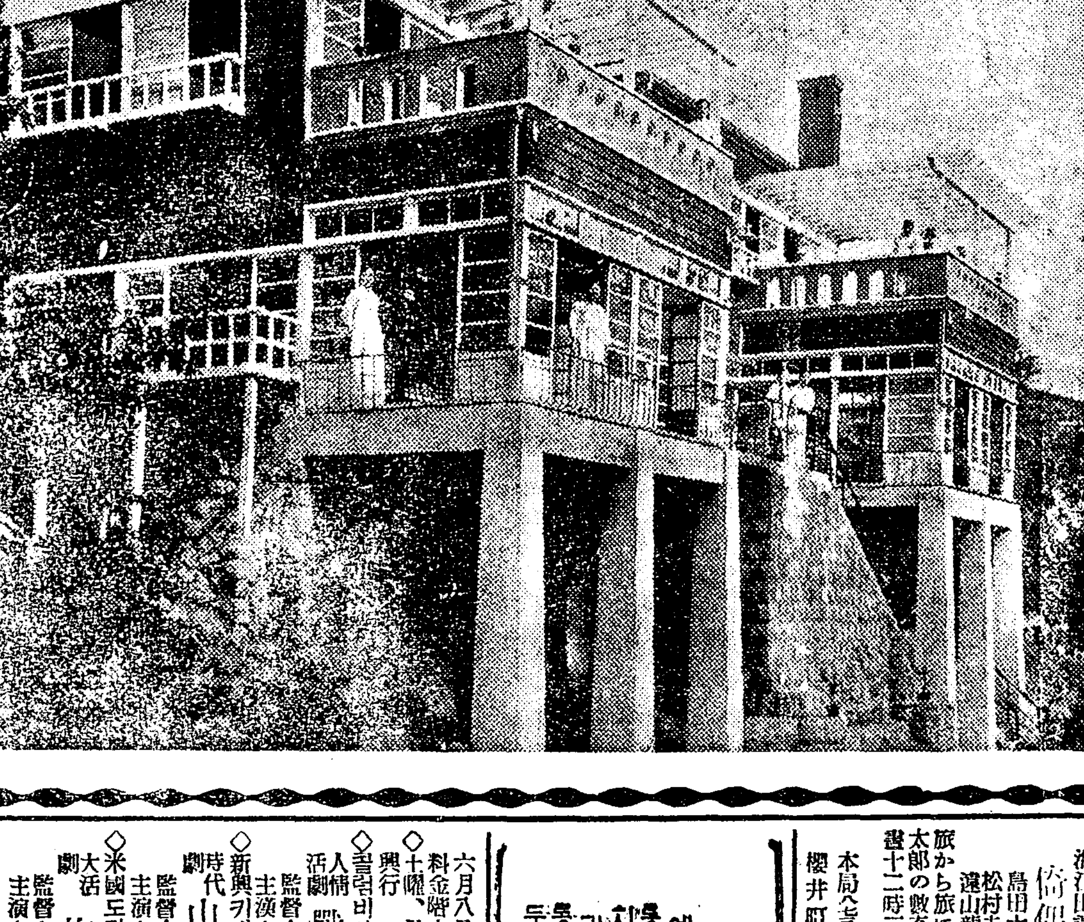
【義州支局特電】륙일오후네시에평북의주군수진면(義州郡水鎭面)고성면(古城面)주내면(州內面)등각면일대에 우박이나려서 곡물의피해가만타 칠일아츰까지도우박이 녹지안흔곳도 잇다한다

高靈의兩篤志

【高靈】 목한농촌에 잇서서 궁민들의식량(食糧)결핍은 절정에달한이때에 호세조차 부과되여 그자금조달에대곤난을당하는궁민들의실정을 가긍히여겨동리빈민의 호세를대납한독지가들이잇다
一、고령면중화동리홍민 (高靈面中化洞李興敏)씨는 사십오호의호세륙원여를대납하엿고
二、고령면저전동리재수 (高靈面楮田洞李在洙)씨는 삼십호에대한삼원여를대납하엿는데 우량씨는 모다자긔네의생계도 넉넉지못함에 불구하고 이러한 미거가잇섯다고한다

天香園別莊新築開業

서울에 朝鮮料理집을 아시는이면 天香園을 아시고 天香園을 아시는이면 金玉橋가 經營해가다는것을 알아주실줄 밋습니다 제가 一個女子로서 이業을 始作하기는 只今부터 八年前 卽昭和三年이올시다 처음始作할때에는三四間이라는 僅少한資本으로 房數 五六個에不過한 朝鮮式家屋을 若干修理하여 開業하엿사오바 爾來八年동안에
一、待客親切 손님을 對할때는 親切히할것
二、廉價奉仕 갑은 될수잇는대로 싸게할것
三、材料新鮮 料理감은 新鮮한것으로쓸것
四、室內淸潔 房은 恒常깨끗이할것
五、寒暖時宜 室內는 녀름엔 덥지안토록 겨울에는 칩지안토록
六、顧客本位 한번 오신손님이면 다시오실마음이나도록할것
七、惟命是從 손님말삼이면 떠러지기가무섭게 듯어드릴것
이입곱가지 信條를가지고 꾸준이 奉仕해왓사옵는바 內外紳士及京鄕여러분손님의 特別한信望을 엇사와 業務가時時로進展되여 規模가날노 擴張되와今은增資에 增資를거듭한結果 時價四拾萬圓의 本館別莊을가지고 奉仕할수잇게되엿습니다 이에對하여 제스스로 無限한기쁨을늣기는同時에 오직 여러분의끈임업시 愛顧하신 德澤으로알고 기피感謝를드리는바이올시다。
여기에 業務擴張에大綱을말슴드리면
一、昭和五年에는 本店所在地인 仁寺洞一一○番地의 隣接地를買受하야建築費만數萬圓의二層洋屋과附屬建物을지여 只今은本店客室이四方으로솟비합니다
二、昭和六年에는 東小門外 貞陵里靑岩寺압 淸水洞某富豪의 別莊地約四萬餘坪을 舊式建物이부튼채로 貸家를하여 舊建物에 若干修理를加하야 天香園別莊을開始한 爾來만흔 歡迎을밧아오든中 昨年에와서 家屋及附屬土地를 全部買受하여 擴張해왓습니다
三、同時에 沐浴設備업슴이 손님에게 큰不便이됨을 깨닷고 本店은 勿論別莊까지도 最新式沐浴設備를 完備햇습니다
四、同時에 別莊에는 市內로부터 地遠한關係로 電話設備업는것이 遺憾으로생각하고 今年初에巨大한 費用을드려 架設햇습니다
이와가치 年年이 業務를 擴張해와사오나 그래도 나날이구름가치 모여드시는손님을 이로 바다모시는수가업슴으로 다시 百尺竿頭에一步를進하와別莊의設備를 更一層大規模로 擴張하기로 햇습니다 特히 別莊設備를 擴張하기로한데는 두가지理由가잇습니다



一、市內와달라서멀리차저와주신손님은그저도라가시[illegible]다
二、(繁天香園別莊)所在地는 여러분이 다아시는바와가티 山高고 물맑고樹木이鬱蒼한 勝地온지라 景致를 사랑하시는손님여러분께서는 園遊會送別會歡迎會其他大宴會를 이곳에열고저 下命하시는이 만흐나 設備不足으로 酬應치못하는遺憾이잇섯습니다 이러한不便을 덜기爲하여 昨年부터 起工하여 松林川邊을向하여 洋屋二層과 水閣數棟을建築하기 始作하여 이建築이五月初로써竣工되엿습니다
新館 洋屋二層은 數百名宴會를 하실수잇고 左右水閣은 數十名座席을 定하고놀기실수잇게되엿습니다
(繁天香園別莊)은 新館이 增築된 今後로부터는들노리、꼿노리等 單純한園遊會를 開催하시면 비록 數千名의손님이라도 모실수잇게되엿습니다。
特히 新築洋屋과 水閣은서로 隣接하야、다 川邊을 位置로한지라 뒤로는松林이鬱蒼한山을지고 압흐로는 石壁사이로 淙淙히흐르는 맑은시내를 안고잇습니다 그물건너는 또다시 茂盛한樹木으로 덥힌山이요、그山의 右側으로는 얼마안이가서는 靑岩寺라는 有名한古刹이잇고、그山의 背後에는 奇岩怪石이層疊으로된 北漢山이 君臨하엿습니다
손님께서 坐席을定하시고안즈시여、靑岩寺의 暮鐘소리를 드르시면서或은淸川을 俯瞰하시며、或은北漢山을眺望하시다면仙境이따로잇는것이안이라곳여기라는느김을 禁치못하실것이옵시다 今十六日부터竣工된新館及水閣을使用하오니 內外紳士及京鄕여러분은倍前愛顧하시와 多數히 來臨하시기를바라옵니다

特告
別莊落成을紀念하기爲하야本月十五日午後二時부터新築別莊에서園遊會를開하고內外人士를請邀하야一日을共樂코저하오니諸位顧客은光臨하시압

天香園 主人 金玉橋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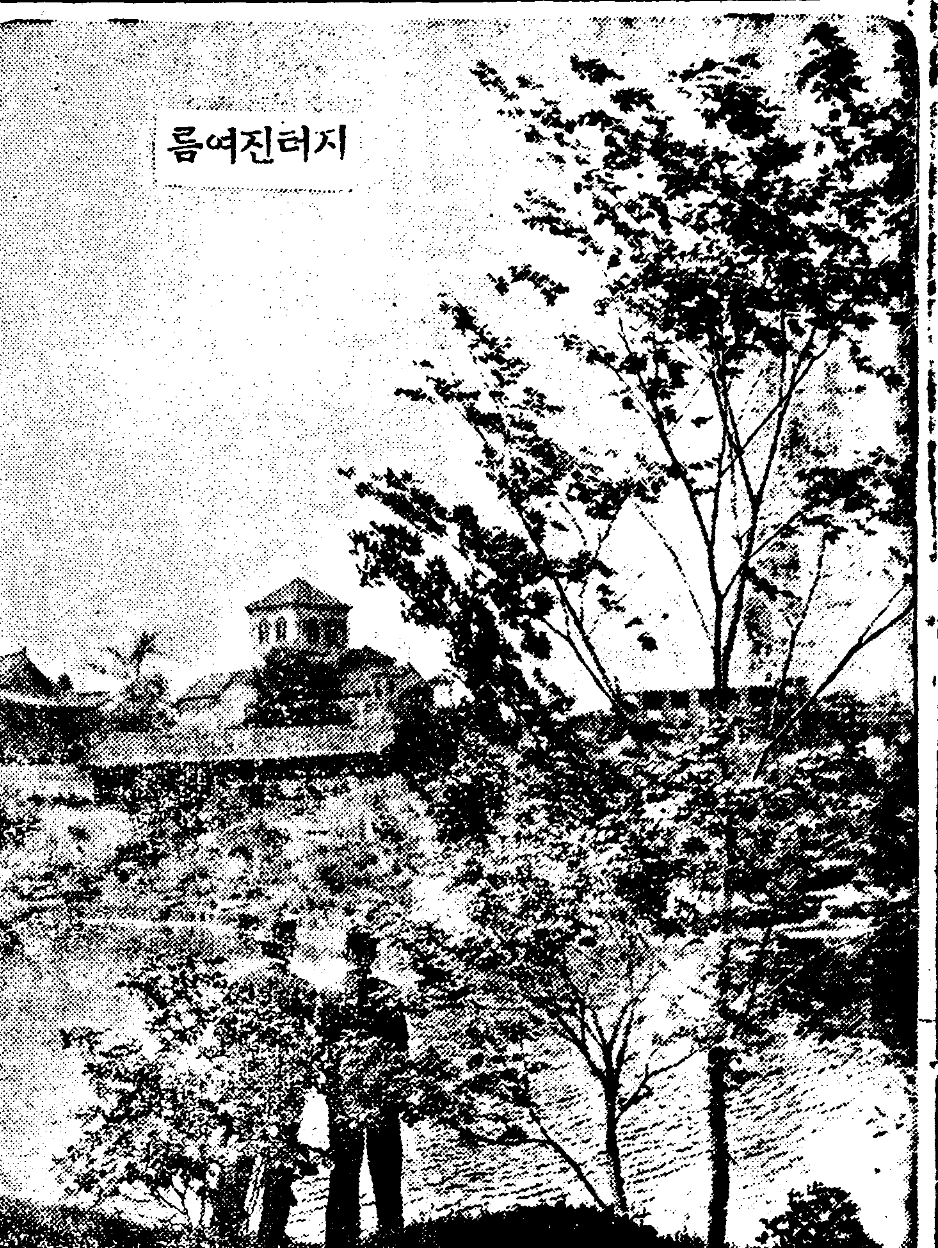
洋畫專門 浪花館
三十一日より大公開 朝鮮初上映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銀鼠流線型
監督 ヘンリイ、ハサウエイ
主演 ゲーリイ、クーパー フランチョット、トーン
二、▲ベンガルの槍騎兵

本局八三三 櫻井町 大正館
六月五日より短期特別大公開 階下席 十錢均一
大都映畫社特作ナンセンス劇 女房大進軍
製作指揮 河合德川郎 監督 吉村操
藤間林太郎 春水麗子 主演
大都映畫社超特作時代俠血劇 傀儡道中仁義
原作脚色 小原武雄 監督 大伴龍三
海江田譲二 月宮乙女 主演
島田六郎、久野おかね 松村大天、大和 王枝共演 遠山龍之介、谷 定子

두통과치통에 노ー신 (新藥)

麻浦桃花洞 電龍一三三 桃花劇場
六月八日낮브터大公開! 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祀日은晝夜二回興行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人情活劇 戰時特派員 全八卷
◇新興키네마社超特作連續篇 時代劇 山직이兄弟 後篇 全八卷
◇米國도라이안글社製作 大活劇 旋風時代 全五卷
次週豫告六月十一日부터 (1)鐵에爪前篇全八卷 (2)大學의顔役! (3)死線突破!! 以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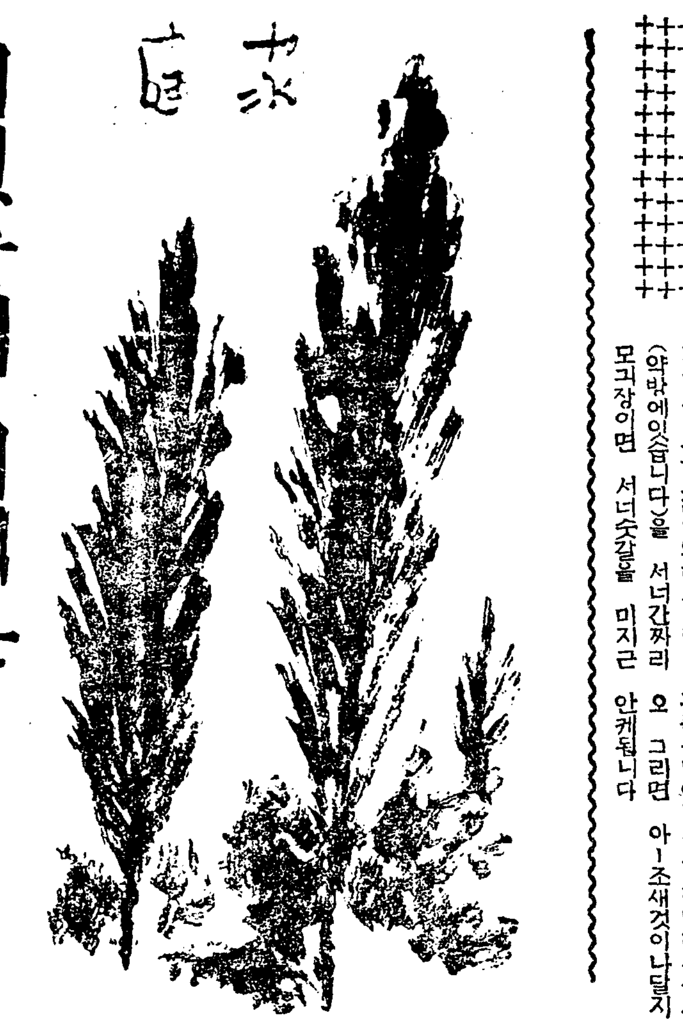
永樂町 電本三○三五 中央館
當ル七日特別大公開 初夏颯爽!!萬人渴仰の名篇姿に日本映畫界最高當代無比の大スタアによつて茲に就る!!
日本映畫配給社提供 第一映畫社超特級オールトーキー お六櫛
名作『本朝の秋』より 第一回オール・トーキー版
原作 正木不如丘 脚色 伊藤大輔 監督 伊藤大輔 撮影 吉田清太郎
山田五十鈴、夏川大二郎、歌川絹枝、月田一郎、中野英治、松本泰輔 共演
フォックス超發級日本版 キートンの 頓馬同盟
原作 ブーネスト・パガノ 撮影 ドワイト・ワレン 監督 チャールス・ラモンド
バスター・キートン主演 ドロシイ・セバスチィン助演
新興キネマ時代劇明朗篇 鼻唄奇兵隊
原作 山內英三 監督 金田 繁



지터진여름

모기장은 세탁하는법

더러워지거나 빛이 날근모긔장은 오히려 진땀이흐를것가티보히지므로 이것을다시 곳처서써야합니다 먼저 망사만 떼여가지고 세탁을하십시오 세탁엿은 비누보다도 『소-다』를 미지근한물에너허서 씻슨뒤에 힌것이면곳풀을하시고 프른것으로 빗이날근것이 여름을 드려가지고 풀을하십시오 물을들일려면 먼저팔고 르물드리기위해서 탄닌(약방에잇습니다)을 서너간짜리 모긔장이면 서너숫갈을 미지근한물에타가지고 한시간동안 적서두는데 때때로 흔드십시오 그리고 이새에물감을준비해둡니다 물감은마라카이트그린을 적은것으로 댓숫갈『오라민』을 서너숫갈 물에타가지고 모긔장 전체가모-두적서 지리만치물을만들오 먼저 담거두엇든데서 꺼내잘 짜가지고 이속에 너허두십시오 그리고는 다시꺼내서 짜가지고 는물을먹여가지고 잘말리우십시오 그리면 아-조새것이나달지 안케됩니다



어렷슬때 긔억은 네살부터 시작된다

년령따라변하는뇌수의발달

엇던인상이 오래가나

아모리 긔억력이 조흔사람일지라도 네살이전의일은 잘알지못합니다 그러나 네살뒤의 일이면 긔억력이 조치못한 사람이라도 대개는 긔억하고 잇는것이더러잇습니다 그것은대체웨그런가?

사람의죽은뒤에

그사체의년령에따라그때그때의뇌수의무게를달어보면 만사세를한시긔로해서 긔억의차이가 심한것입니다 가령말하면 남자의뇌수의무게는 난지얼마아되여서는 삼백오십『그람』쯤밧게는 안되는데생후 일개월이되면 사백삽십이『그람』만 이년이 되면일천백『그람』만삼년에 일천이백『그람』의차이로서 차차로

성장해가는것이

나 만사세가되면 일천삼백『그람』이되여서 보통성인된 뇌수의무게 일천삼백구십 구람과 그다지큰 차이가업게됩니다 이것을 다시 엄밀하게말하면 만사세구개월이되면 일천삼백사십오『그람』이되여서 그때부터는 잠간동안변동이 업시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인간의 뇌수의발육은

만사세가되면은

대체로 완료하는것임으로 그전은 요컨대 뇌수미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눈、코、귀등의오관도 뇌의연장으로볼수잇슴으로이러한오관의 발육하는것도 역시만사세가되이때에와서 거의 완성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긔억에오래남어잇는것

이 뇌수발육이 거의완성한만사세의때이라면

뇌수발육경과중

의인상은 긔억으로서 기리남어잇지안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사세의아해는 아모리 천재라고하드래도 보통성인과갓치 두뇌의활동은 하지못하는것이만큼 뇌수가 완성된다는것은 우수운말갓지마는 이것은 소질상으로완성하는것이고 경험상으로 완성한다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 소질상으로

거의완성한뇌수

는 다시 남자십세경과 녀자팔세경에서 변동되기시작해서 남자이십세、녀자십륙세가되면 뇌수의발육은 아주긋치고완성되는것입니다 그러나이때의발육정도는 남자가 사십『그람』쯤붓는데비해서 녀자는 팔십『그람』이나붓는것입니다 그러면 엇재서이시긔에와서는 녀자가 남자의배나붓느냐하면 물론 녀자는

생식본능이외에

육아본능이라는것이 잇는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사세가되면 뇌수가완성을하고 완성이된뒤에는 인상이라는것이 깁이긔억에남어잇지마는 뇌세포가 분열을하고또한증식하는동안은 긔억으로서남지안코 작구만새로운인상이생기는것입니다

그러나 뇌세포의분열이작구만거듭하는데도물구하고

인간의뇌수속에

깁히박혀잇는 인상이잇습니다 이것은 긔억이로고할수는업겟지마는 인류전채에게 희미한인상과 가티 뇌세포에붓터잇는것이잇습니다 가령말하면 배암에게대한 인간의공포갓흔것이 그것입니다 이로써본다면 일즉이 우리네인류의조선이 진화해오는과정에서 배암과 만흔투쟁을해왓다는말도 사실이안일가합니다 그래서그때의무서운인상이 아즉도 우리에게남어잇는것이안일가합니다。

어찌하리까

주름살잡힌것이 실연의원인이되나

문 생은금년이십세의 청년이온데 얼골이 늙으니처럼 주름살이 잡히엇습니다 그리하야 지금까지『쪼글쪼글』이라는 별명을 듯고잇습니다 그런데 작년가을부터 어떤처녀와 사랑하는사이가되여 금년봄까지 계속하여왓는데 돌연히 그녀자는 저의가슴에 큰 커를주고 나를버리고 가버렷슴니다 지금 생각하오면웨내가 그러녀자를 밋고왓던가 하는생각도나지만그러나한번 사랑햇든 사람이니 마치 도저히잇처지지 안습니다 원래부터 녀자의 마음이란 결코 밋지못할것인줄은알면서도 여류홍의 사랑에 취하야 여지끗 사랑을속삭여왓는데 결국이러케실연을당하고보니 분하고설고 야속해서견딜수가업습니다 그런데 이제실연한원인은 아모리생각해보아도 이쪼그러진 얼굴때문인것갓습니다 선생님이런얼굴을 한일도잇습니까?주름살을펴는 약은업습니까 만약잇다면 하로밥비 알으켜주십시요 (쭈글生)

답 얼골이 못생긴것이 원인이되여 실연하엿다니

비관할일못되오 원인은따로 잇소

여하간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순전히 당신이 얼골이 못생긴것만이 그실연의 원인이라면 어찌하여 그못생긴얼골을가진당신을 처음부터사랑하게되엿슬가요? 이것을보면당신의 얼골만을보지안코 그어떤다른방면을 보고 그녀자가 당신을 사랑하엿슬것 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당신의 실연이 당신의 못생긴 얼골보다도 다른 과오(過誤)에서생긴일이 안인가 생각됩니다 사람의 얼골 더구나 남자의 얼골이란 그러케 연애혹은 결혼에 중대한 문제가되지안홀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너무 걱정을말고 좀더 당신이 하시는일이 무엇인지 거긔 전심하십시오 그리하여 훌륭한 인물만되면 얼골가튼것은 결혼이나 연애에 문제가 안될것입니다 (一記者)

남자를끄는데는 엇던화장 엇던옷?

헐리우드미인스타-의의견

어떤남성이나 한번보면반하지 안흘수업다는『헐리우드』의 미인 스타-가 익명으로써 『어떤 화장과 옷을 입어야 남성을 끌리게하는가?』란 제목으로『데일리 밀러』지상에 펴자미잇게써잇습니다

이제、남자를 끄으는타입의 화장과 이상에 대해서는다음의 다섯가지를 들엇습니다

1、간단한옷을 입는것

2、자연스러운 얼굴빗으로 화장한녀자

3、도회에서는 하이힐구두 식골서는 굽이야즌구두를 신을것

4、눈올때는 말쑥한옷을입을것

5、해안(海岸)에서는 고전미가잇는것을 입을것

이라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실혀하는타입은 다음과갓다합니다

1、그레타、가르보 모양의 스타일을가진녀자

2、샛빨간『베니』를 손톱과 입에바른녀자 그리고잘랑 잘랑소리나는 귀거리를한 녀자입부러바른것가티 모히게빰에 연지를바른녀자

3、바람만히부는날 바삭바삭하는 명주옷입은녀자

4、드라이브할때 관극용의 두러운 모자를 쓴녀자

라고 합니다

이상과가티 남자가 녀자의 복색에대한 긔호는 기교적인것이나 눈에 반짝띄이는 것을 실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의하서 서화장이나입는것가튼것을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배우학교

아모리학교가 우후의죽순가티 생기는시절이라고 하드래도 녀긔에보이는 영화의왕국『허리웃드』에잇는『스타-』학교는 결코 『인리키』학교의 배우학교는 안입니다

이학교는 장래에대『스타-』가 되리라고 각々『스타듸오』에서선출해내인 사람들에게 해방되여잇는특수학교입으로 입학하기도 그다지쉬운것은 아니랍니다。

맛잇고 담스런 中國料理 몃가지

炸蝦球

(짜샤추)새우완자재료

새우 오십마리를 껍질을벗겨 짓니여놋코 계란 두개를 푸러서 잘저어놋코 생강 한개 파 한개 갈분가루 약간 기름 반 술 소금

조리법

새우를짓니인데다가 술、소금、파、생강을 짓니여넛코 계란푼것과 갈분가루를 푸러너어 잘저은뒤에 남비에 기름을붓고 펄펄끌을때 동글동글하게 만드러너허서 툭튀여냅니다。

家庭메모

찌저진방수만또 반창고로때우라

방수만또가 찌저젓슬때 실로꾸매면 오래쓰지도못하고 그바늘구녕으로비가 새여들기도하는것입니다 그런때문에 찌저진데를맛추어놋코 속으로 반창고(絆創膏)를붓처서꼿치면 보기도조코 비도새여드지안습니다。

축음긔를、래쓰자면 첫재 태엽을감을때주의를해야합니다。그럼으로태엽을감을때는넘우힘을드리든지 불평균하게감지말고 일정한속도로서 천천히감는것이조습니다。그리고『레코-드』한장을거는데 삼십회를감는다면 미리 오십회가량좀감어놋코『레코-드』한장을다들은뒤에는 다시삼십회를보충해감는것이조습니다。왜그러냐하면『레코-드』가도라가다가 중간에서태엽이풀려진때문에 새로감는것은 축음긔에아주나쁜것입니다。그리고 다듯고난뒤에는『레코-드』를네려놋코 그대로돌녀서 감겻든태엽을 전부푸러두는것이조습니다。

家庭婦人協會月例會 漢江건너에서연다고

가정부인협회(이사동 태화녀자관내)에서는 오는 팔일(토요일)에 월례회를 여는데 회원은 회비삼십전을가지고 오후세시까지 한강철교건너 룡봉정압으로 모히라한다。만약 비가오면 태화녀자관안에서 열기로한다고

家庭醫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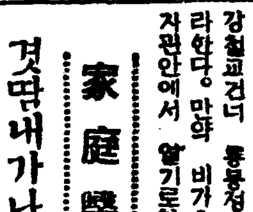
겨드랑내가나는데

問 생은 금년이십일세된남자올시다 그런데겨드랑이잇서 심히고민으로 그냥그날을지내며 잡지나신문에 광고도 약도만히썻스나 그리신통한효과를 보지못햇습니다 가정치료법을 하교하여주시오 만일그것도신통치안타면 외과에가서 수술하는것이조흘는지 수술하면 꼭효력이잇슬는지요 수술비는대개 얼마나드는지요 자세히하교하여주십시요 (安邊一靑年生)

答 약으로 악취는잘낫지안습니다 수술을하야 냄새를발산하는 피지선(皮脂腺)을 도려내면 근치할수잇습니다 주저하실것업시 꼿수술을바더서 고통을면하시기원합니다 수술비는 병원에 따러각각다르니까 말할수업습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金氏談)

유-모어小說 望夫石【三】

金熊超 作、畫



자장歌 (五)

이른봄ㅡ

재호는 여니때와 달리 회사가 파하자꼿 집으로 도라왓다。간 밤의 난리를 치르고 나서 당분간 근신하는뜻을 안해에게 보이라한것이다。

『웬일이야、래일은 해가 서쪽에서돗겟네』

명례가 방으로드려오는 남편을빙그레웃고 마지며 오십전버는맛에 엽집젊은이의 깨끼저고리하든것을 한엽흐로밀고 이러섯다。

『서쪽에서 돗거나 북쪽에서돗거나간에 비오게생겻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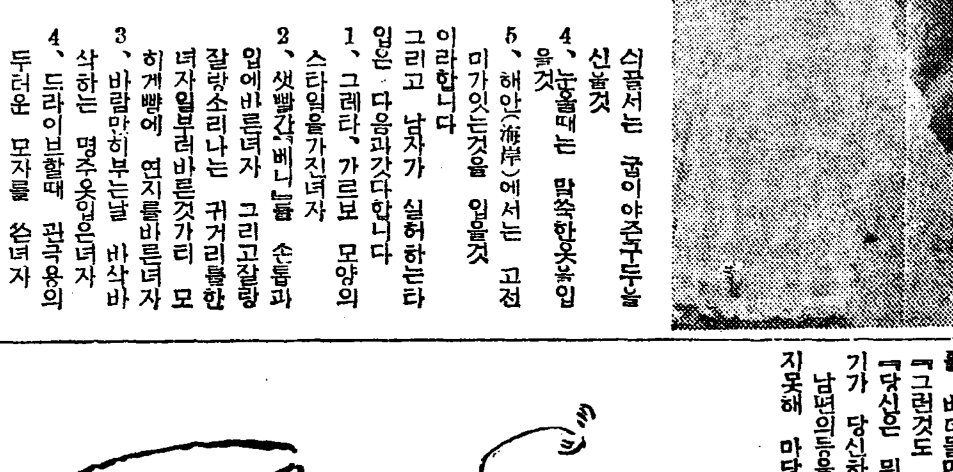
『비오겟서요? 그럼 장독뚜껑을덥허야겟네。기왕이면 좀덥구드려오지 그대로드려와요?……』

재호가 버서주는 양복저고리를 바더들면서 눈을 흘겻다。

『그런것도 내가해야하나?』

『당신은 뭐게 못한단말요。여기가 당신하숙집인줄 아시우』

남편의등을미럿다。재호는 마지못해 마당으로 나갓다。



『나를 행낭아범부리듯햇겟다』

『조흔살림살금 덥허요。그러다깨지면 엇더컬라구! 집안에서 아범노릇도 해야지、주인아씨도안짬재기노릇을하는데!』

날이흐리면 사람의마음도 호려진다 ─ 울분으로 세상을 사러가는사람들에게는 업는십사가절로나고 까닭모를 짜증이 푹푹솟슬 납시다。그러나 오늘루 내외마음은 의외로 명랑하다。간밤일이 상한음식먹고 일어난 곽난이라면 오늘은 소화제먹은 뒤끗처럼 호련한기분이다。

『날시가 이러면 술한잔 생각나겟구료』

장독뚜껑을 덥고드러와서 옷을바귀입는 남편을바라보면서명례가 입을여럿다。

『엇저면 남의속을 저러케 잘알까?』

『내가 누구라구。삼년ㅅ재길드리는 맹수(猛獸)의 속을 모를까?』

『맹수? 내가맹수고、너는 맹수사란말이지?』

『그럼。가정을 무시하고 안해의인격을유린하는 횡포무쌍한당신이 맹수아니고 뭐요』

『기세가 대단한군! 내가 맹수라!』

재호는 자기자신을 갈기가터부룩한에디오피아의 라이온으로 생각도해보고 누런바탕에 검은줄이죽죽진 만주산의 덩지큰호랑이로 생각도해보앗다 그리고는 놉흔한그 기상에저윽이만족치안한배도아니엇다。

『그래 무슨맹수야』

『늑대! 교활해서 길잘안드는늑대!』

『늑대?』

재호의기대는 여지업시 어그러젓다。창경원 쇠창살속에서창공을내다보며 끄리는기운업시 축느러트리고 종종거름을치고다니는가엽슨 늑대가련상 되엿섯다

『술한잔 바다다드리리까?』

명례는 바느질삭전을 장대엿다。

『그만두겟서』

『잘생각햇서요……그러치만 한잔만 사오리다』

『일업서』

『인제겨우철이낫수로 그럼곤하실레니 한잠주무서요』

명례는 이부자리를내려다 아랫목에깔고 자기는 한엽해미러노앗든 바느질그릇을 다시차고 안젓다

한참동안은 침묵이흘럿다、재호는 간밤을거이뜬눈으로 새다십히하야 온종일몸이 노곤하기는하나 자리에 눕고보니잠이오지안햇다。명례는 남편을 잡자게한」라고 입을다물고잇섯다。

그러나 남편이 잠은안자고담배피우는것을보자 입이간질간질해서 백일수업섯다。

『여봐요』

『왜그래』

재호는 담배연기를 코로내뿜으면서 밧은 말에석겨 내보냇다。

『당신보기에 내가 결혼할쩌보다 지금은 엇대요』

『김나간 사이다-지뭐야』

롱담비첫이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햇다。

『호호……사이다-?딴은 그럴듯해!김이다빠지면 맛업서서안먹고 버리겟구료』

『버리기야 악갑지』

『내생각에는 당신이 나를맥고모자처럼 역이는것가태』

『맥고모자?』

『그래요。맥고모자는 갓사서쓸때위하지 한여름 다쓰고나면 멀쩡한ㅅ도 팔세를합디다 그려。』

『맥고모자!하하하하……。임원넘겨주면 잇해는 쓰지』

재호는 속으로 명답이다 십헛다。

『말마라요 당신은 지난여름에 두개쓴생각안나요?』

『그건 오십전짜리』

『오십전이고 십전이고간에 그런신세가어데잇서。먼저것은리혼당한셈아니야?』

명례는 자기자신을 맥고모로치고 『묵은맥고모표백법』은엇술까하고 생각햇다。

曆 六月八日(土)

陰五月初七日

乙卯·水女敎

●祭祀에吉

▲舊曆 七日(陰五月初七日)

▲夏至 二十二日(陰五月廿二日)

오늘

七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곰비듬기 毛麒允

◇同六時五五分 農村講座 移秧과農家行事 京農敎諭 金雄珏

◇同八時 農村講話 (總督府囑託 山崎延吉) 齊家의要道(五) 譯講 金玉鉉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二、倂唱 중모리 나、자진모리 가、短歌 나、唱劇調 興夫歌 沈相健 韓成俊

◇同九時 寧邊歌外 一、寧邊歌 二、朴淵瀑布 三、漢江水打鈴 四、노래가락 申海中月 大笒 金町儂

◇同八時二〇分 라듸오·드라마 長嘆曲 全二幕 金昌基作

八日(土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鱉兎傳 金錫九

◇同二時 常識講座 近視와遠視 趙昺榮

◇同六時三〇分 童謠 一、齊唱 노래 北쪽별南쪽별 二、獨唱 노래 三、齊唱애기각시 四、齊唱 아젓시모자 五、獨唱봄비 六、獨唱 비방울 七、齊唱 서울구경 獨立門主日學校兒童 伴奏·朴敬善 指揮·崔貞順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農村講座 移秧과農家行事(三) 京農敎諭 金雄珏

◇同八時 農村講話 (總督府囑託 山崎延吉) 齊家의要道(六) 譯講·金玉鉉

◇同八時三〇分 唱歌劇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歌劇水宮歌 林玉尾 鼓手·池龍九

◇同九時 獨唱 一、離別歌…슈-버-트作曲 二、자장가…모-차르트作曲 三、아베마리아…슈-버-트作曲 四、나의집…슈-버-트作曲 五、두擲彈兵…슈-만作曲 六、바다와陸地…베르듸作曲 歌劇『椿姬』中에서 李升學 伴奏金永煥

◇同九時三〇分 映畫이야기 새벽의暴風 李惠興 音樂伴奏

九日(日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 이상한할아버지 全一景【配役】 昌洙…鄭世昊 永洙(昌洙의兄)…金時虎 富者…姜文學 삼돌이(富者집下人)…李炳植 이상한할아버지…劉仙泉 靑鳥會會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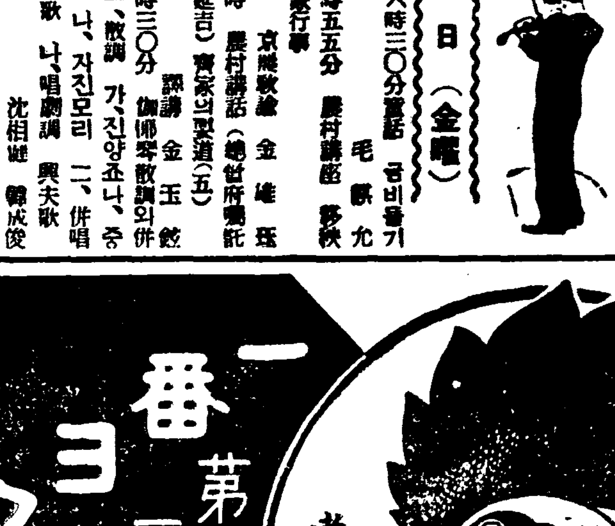
◇同六時五五分 心田通俗講話 迷信의打破 明倫學院講師 安寅植

◇同八時 流行歌 一、아윈그림자…全壽麟作曲 二、嘆息하는술잔…古佐木俊一作曲 三、속아도조와요…全壽麟作曲 四、하로밤매진情…빅타-文藝部編曲 五、哀傷曲…全壽麟作曲 六、斷腸怨…全壽麟作曲 七、날다려가오…全壽麟作曲 金福姬 伴奏 DKO-케스트라

◇同七時三〇分 誦詩와詠詩 一、誦詩 前赤壁賦 二、詠詩 唐詩 林炳駿

◇同八時五〇分 (東)첼로와管絃樂 첼로協奏曲 D短調라로作曲 第一樂章 前奏…알레그로 마엣스도-소 第二樂章 間奏曲 第三樂章 序曲 론도 체로 獨奏 一柳信二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니콜라이·시메르돌랏트

◇同九時三〇分 名曲鑑賞 解說 金仁洙



始祖 老牌

第一番 ヨクキク 잘잡

雞冠蚊とりせん香

닭표 모기잡는향

專賣特許

日本內地는勿論、朝鮮、滿洲、外國에까지모기잡는香으로는名實共히鷄印이代表的이오이以上의品은업습니다。

(1) 모기잡는香의始祖요世界最大의除蟲菊會社의製品인것。

(2) 效力은絕大他品의追從을不許하는製造特許品인것。

(3) 香이오래타는故로斷然經濟的인것。

사실때는他品에迷惑지마시고가장信用잇는高級品인『鷄』印을指定

『鴨』上『路』靑『記』……(13)

胡船뜬『얄루장』

—鴨江을끼고내리며(其四)—

李殷相

우리는 鴨綠江邊의 淸城津에이르러 잠깐下車하야, 江人가에돌을빌려안젓다.

건너便 저비땅 長甸河口는三角形瓦家들이 古色을 지닌채로 팍—팍, 차근차근히 자리잡고안즌것이, 지나가는 사람의 얼른보는눈에도 다른 무엇엔지 生活의安定을어든것갓다.

그러자 江流우으로 떠내려오는 廟三艘 검은배! 바라보매 靑衣를 입은사람들이다。한배에 아마四五十名씩이나 탐모양이니 저百數十名의 淸人들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것인가。

應當저들은 다商人이거나 農民일것이니 제各其 재生活을爲하야 鴨綠江을 오르내리며, 이江을저러케 利用하는것이리라。

남은몰라도 나는 分明, 한숫의朝鮮人배나마 이江우에 떠잇는것을 보고시펏다。참으로 마음속에 苦待하며 보고시펏다。그러나 우리가 義州에 대이기까지, 畢竟 朝鮮人배는한雙도 보여주지 아니하엿다

우리는 이江을 『압록강』이라 부르고, 滿洲사람들은『얄루장』이라 부르거니와, 이江우에 힌옷입은사람들의 生活活動이 이가티도 零星한지라, 이江은『압록강』이아니오 胡船뜬『얄루장』임을 알겟구나!

이江은『얄루장』

『압록강』이 아니로다 내리고 오르는배마다 보고보아도 胡船일네

夕陽에白衣行人이 눈물시며 지나노라。

淸城津을떠나,限十里餘에 爲㟽巖이란 조고마한 村落을 지나간다。들으니 近者에 이루어진마을이란다。압도山뒤도山, 엽호른江물! 絶壁路邊에 이루히村落인데, 내길이 閑暇만 하엿더면 하룻밤이나마 여기서 자고가고십다。

이村落이름을 뉘가지엇, 지는 모르거니와, 아마『月落鳥啼霜滿天』이란 詩句를 풍던사람인가보다。

鳥啼巖! 어허 저것보게! 너무도 공교롭지 아니하냥이 돌마추어 江上으로 가마귀 서너마리가 날아온다。果然 그이름 잘마잣다。그러나 나는 亦是 이 가마귀를 通하야 나의 **本情을口號하되**

가마귀 울며울며 어디로서 날아오나 江건너 저네山에 죵일을 헤매다가 듣바게 해진다하매 내땅차자 되오너라。

나는 엇든부른 내노래와함께 朝鮮移民의 情況이 눈에떠올라 괴로운을 참기어려움기로, 나는 엣번이나 손등으로 내눈을 부비고앗엇다。

그리자 또하가시 우연한일이 아닌것은 길이나를爲하야, 짐짓 이괴로운江물을避해주는것이다。野趣로 들어서니 예는 玉江鎭! 옛날 玉江堡의 關防이잇던곳으로, 이鎭處에 周圍七百四十四尺, 高五尺五寸이라던 石城의遺基가 아직도 남아잇다。그리고 그리 크지아니한 小江流를 만나니, 이는 玉江인데 **저天摩山으로**부터 흘르는물과, 또석子山으로부터 흘르는물이 山羊灘에 이를어合水가되어, 西으로 五十里를 흘러마친내 鴨綠江으로 들어가는江이다。

實際에依하면 이江中에서 淡靑玉이 나기때문에 玉江이라이름하엿다고한다。事實有無는 오늘와서 알길이 업거니와, 果然 玉이라도 잇을듯이맑은江流이다 어허! 아름다운自然! 이길에서보나, 저길에서보나, 山水만은참으로 아름답다。朝鮮의 어느곳에 내린自然이, 잇던가。아무데고 이를어, 살펴보면 거기마다 다아름다운 곳일러라。

그러나 山水가 아름다울스록 歷史의슬픔과 人情의아픔이 더 괴로운일이다。오! 玉江의 아름다움이어, 玉江의 괴로움이어、

하여짐은진실로

正誤 昨日本文의題目『…必不亂』은『…心不亂』의誤植이오, 鴨江을끼고내리며(其二)는(其三)의誤植입니다

聽川雜纂 ……(1)……

藝術의繁榮

金晋燮

十七世紀 和蘭의 繪畵가 古今을通하야 世界美術史上의最高峰이되는것은 이제는이미識者周知의事實에屬함에도 不拘하고 참으로 이때에 모든和蘭人은藝術을 그例가업슬만치至極히愛好하얏슬뿐임에는 그치지안코, 거의모든和蘭人이 繪筆을들수잇는藝術家이엿든 奇蹟的事實을잘理解하는사람은 퍽으나적은것갓다 이것은 果然엇더케說明되어야할 것인가?

筆者亦是 그深奧한 理由를 說明할수업는 一人임에는 틀림업지만 나는 最近에偶然히『죤·에벨라인』의著作을輸讀다가 문듯어떤대목에부닥치니 這般의消息은 얼마쯤明瞭히된것가타도생각김으로 그不完全함을不顧하고 여긔大方諸賢께紹介코저한다『에벨라인』(John Evelyn, 1620—1706)은 多方面한著作家로서보담도『다이어리스트』로서더욱 **有名하니** 一六四一年으로부터 一七〇五年에 이르기까지의約七十年間의 歷史的生起를記錄한그의 尨大한日記集은當時英國의社會相을 如實히戲曲化한것이라하야 識者間에評價되는바價値가甚히高다。다음에내가引用하는 것은 一六四一年에和蘭을旅行中이든그가 例의日記集에摘記안바一節에다름업다

『……내가 和蘭의都市『로테르담』의 歲市, 或은敎會에서立記念祭를보고 무엇보담도不意의驚愕을 發치안흘수업섯든것은 **唯一한것은**展示장바닥全體가 限업시만흔繪畵의 汎濫으로서展覽되여잇섯다는것이다。나는 若干의 그림을 사서 英國으로부쳐다。이곳에 그림이 이와가티도만코 그리하야 그그림이또한 말할수업시 廉價한理由를 질문해보면 여긔서는 사람들이 그들의金錢을投資함에 供할만한土地와田野를 充分히갓지아니하므로 自然히그들은 美術品에다손을대게되는것에잇섯다。이리하야 보잘것업는凡夫匹婦일지라도 **二千乃至** 三千磅의 投資를 繪畵賣買上에實行하고잇슴은 이곳의一般的現象이되여잇다。나는 어던지는잘알수업스나 依例히大모든和蘭人의집과집이 無數한繪畵의堆積으로서 充滿되야잇는것을두눈으로目睹할수가잇다。그들은 實로이것을 歲市에서파라서 큰利得을어든것이다…』

이와가티 藝術이 一般民衆의 愛好의 對象이될뿐아니라 한거름을더나아가 生活의資料까지되엿든 上述한바事實이 果然엇더한結果를 보게하얏는가에對하야서는 말할必要가업다。

藝術作品 이 그當時에잇서서 和蘭의 商人, 實業家, 銀行家, 家主, 旅館業者間에 서로金錢同樣으로 支拂되고 去來되든事實만은 여러가지 다른 古文獻에 徵하야 보아도 明白하니 여긔서는 煩雜함을避하기爲하야 世界的으로著名한 和蘭의巨匠數人만을拉來하기로한다면 風俗畵家『수라—니』(Jan Steen, 1626-79)은 元來 술을즐겨하얏든지 [illegible]—즈』의

風俗畵家『뿌루—에르』(Adriaen Brouwer. 1605-38)는 그의同僚에게서 그림으로서내종에갑기를契約하고 千六百굴덴을 취하얏다。靜物畵家도이를이눈은

『크레—퓨』(Nicolas Crepu, 1669-1701)는 三十五굴덴의『팡』代金때문에 한張의 靜物畵를바친일까지 잇슴이 잇섯는데『팡』장사는 勿論, 이것을 다른사람에게 百굴덴으로 다시放賣하얏스니 三倍에파라먹의 利를 獲得한것이 分明하다。諸聖『렘부란트』가 또한 여긔登場하는 名聲를 몰리칠수업는것이니 그가 一萬五千圓의빗을바드라고

星火가티 닥쳐드는頑强한債權을 면幅의그림과 면個의鍛版彫刻을 가지고 滿足식힌것은 아는사람은 아는바逸話에 屬한다。風景畵家로 有名한『코닝크슬로—』(Gilles Van Coninxloo 1544-1607)가튼사람은『엠덴』市에밧치는 市民稅까지 描畵等屬으로代拂하엿다면 問題는 이以上 더무어라고 說明될거리가 업게된다。참으로 藝術의黃金時代는 前無後無, 十七世紀의和蘭國에 오즉한번 展開될수잇섯스니 이것은 한마듸의거짓말가튼 참말이다。

詩 論

詩人의포—즈

(午前의詩論、基礎篇續論)

(5) 金起林

○ 한번은 모—든藝術이 사람에게서 出發한것은 事實이다。그러케 사람에게서出發한 藝術이 다음에는 사람을 떠나기시작하야 藝術自體의속에 遊離해버렷다。그것이 오늘의藝術의現狀이다。

허나 그것은 다시 사람에게로 도라가려고한다。

○ 누가 藝術은 恒常사람을描寫한다고 말하엿다。그것은 똑바른 말이다。

그러면서도 이말은 거진 十九世紀를 亡처노흔 말이다。過誤는 그말自體에 잇느니라 그것을 誤解하는사람들의便에잇다。

即藝術은 사람만을 憎惡한다고 燥急하게 解釋해버린것이 過誤의 根源이엿다。한개의副詞는 往往히 이러케 한世紀를 그르치기도한다。

嚴密 한意味에서 物質的으로 解釋한다면 詩는 말만을材料로삼는다。그런데 그말이代表하는 物象이나 觀念은 往往히 詩의對像이라고 解釋되여왓다。그러면大體詩의對像은어떤한것들인가?

1 自然
2 人間=生活
 A 行動
 B 感情
 C 其他의精神活動
3 哲學

허나 이것들이 詩속이 들어올때에는 벌서 그것들 自體의自主性을 일허버리고 全體的構成의 一部分을일움에지나지안는다는것을니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詩의 對像을 따로히 생각하는 것은 危險한일이다

웨그러냐하면 그일은 자칫하면 詩는 그對像을위하야 存在하는 한개의方便처름 誤解될염려가 잇는까닭이다。

따은 지금까지의 作詩의 風俗에依하면 詩는 對像을 通하야 主觀을 노래햇거나그러치안으면 **大體**로 對像의印像을 노래한것이엿다

그러나 오늘에와서는 一見對像처름보이는것은 모다 詩的인 것으로變形되여 詩自體의 世界를構成하는 한部分的材料에지나지안는다

詩人은

한개의感情을 지여낼 수가잇다

한개의感覺의世界를 지여낼수 가잇다

한개의思考의世界를 지여낼수 가잇다

그러나 詩는 그속에씨여진 自然이나 觀念을위하야 잇는것이 아니다

다시말하면 詩의對像은 詩自體의속에씨인 얼른보면 모—든 **對像** 처럼 보이는것은 모다 詩의材料에 지나지안는다。

『막쓰·재콥』은 말하엿다 『한개의 作品의價値는 무엇에 잇는냐하면 그自體에 잇는것이로서 그作品이 現實과一致하는나 안는냐하는일과는 關係가업다』

웨그러냐 하면 詩속에 씨여진 모—든現實은 現實自體를위하야잇는것이 아니고 詩를위하야잇는까닭이다。그래서 그現實의斷片은 詩人의 感情의代表라든지 印像으로서가 아니라詩의 建築을爲하야 綿密하게計算되고 裁斷되여 活用되는데 지나지안는다。

○

나는 以上의 意味內容을 다른 말로 밧구어서

詩人 의『포—즈』의 方面으로부터 생각해보고저한다。

詩人의『포—즈』는 大體로 아래의 세가지로 假定할수가잇다。

1、 내自身을 노려봄

2、 나에게 反映된 世界를구버봄

3、 나를通하야 世界를바라봄

『이마지스트』(寫象派)以前의 모—든 詩派와詩人의『포—즈』는 大體로 第一의것이엿다。

『이마지스트』의『포—즈』는 第二의것이다。

여기까지는 詩人은 現實에서 될수잇는대로 멀리떨어저서 그것을 避하려고햇다 다시말하면 所謂『隱退의詩』엿다。너는 엇재서 오늘도 薔薇와 노을과 별과『캐나리』와 海邊과 꿈과 憧憬과 中世紀의戀愛와 해오라비와天使와 아가씨의庭園과 갈마기와 墓地와 搖籃과 참새들과만놀고잇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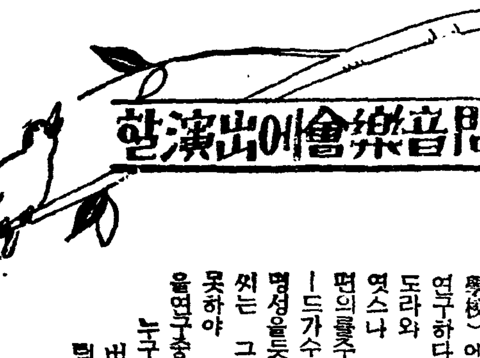
이것이 保守的인詩人들의詩的인材料다。

娼女의 목쉰소리、機關車의『메캐니즘』『못솔리니』의 演說 共同便所의 博愛思想 公園의欺瞞 『헤—겔』의 辨證法 電車와人力車의 競走——우리들의 **周圍** 를둘러싸고잇는 이奔放한文明의展開에대하야는 그들은 一顧이것들을 非詩的 이라고하야 얼굴을 찡그리고 도라선다。

오늘의詩人에게 要望되는『포—즈』는 實로 그가 文明에直面하는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손에 부더치는 모—든 것은 그의材料가 될수가잇다。그러나 그는恒常 그속에서도그 肢慌하고 豊富한材料에 壓倒되지안키위하야 强靭한感性과 健實한知性의 날을 갈어야할것이다。例를들면 일즉이『엘리옷트』는『빅토—리안』의 田園과『라와『쇼—지안』의 꿈나『이마지스트』의 美學의 동산에서 詩를 現代文明의『荒蕪地』속에 끌어내오기까지는 조앗스나 그는드되여 尨大한 現實에 壓倒되여서 겨우忠實한『카메라』와 가치

享受 할뿐이엿다。나아가서 그는 굿센批判까지는 가지지못하엿다。

—계속—



故土訪問音樂會에出演할

在東京音樂家들의全貌 (18)

無理가업는

바리톤歌人 林憲翼氏

서울서 휘문(徽文)을나와 한때 동경동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에서 사년동안 피아노를 연구하다 집안형편으로 고향에 도라와 성악을독습으로 연구하엿스나 여러가지사정이 그에게 면허를주지아허 콜덤비아、레코—드가수로 하때 류행가도서, 명성을돗날리든 림헌익(林憲翼)씨는 그의 타는연구심을억제치 못하야 다시동경으로가서 성악을연구중이다

누구나 자긔의천분을 내여버리기실혀하는 바이지만 림씨는여가에 잇서서 그 양전한맙이나 퍽이나아락가 원슬할안다 천품으로 아름다운 소리를가지고 엿고 피아노와 작곡(作曲)에 대한소양이기프며 무리가업는그 발성법은 림씨의장래에 조그만치라도 랑패가업슬것을말함이다

노래만하면 사느냐고억설욱하는 사람이잇스나 노래하는것이 천직이라면 사람은낫스면 사러야하는셈가치 노래를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런고로이림씨도 노래하는것이천직인이상 이것을 끗날까지노치못하는것이다

점점 그새로운 묘지를보혀주는 림씨는 남달리 애쓰가잇는까닭빌것이오 그장스런지안흘 풍채가 족히 림씨의장래에 고상한음악예술의탑을쌋흘날이 잇슴을 보게한다

림씨는 류행가를 하엿스나 그것은직업이엿고 원래는 빠리톤으로 별다른 공과를싸흐것이다 아무렷튼지 림씨의건투를빌자

朝鮮醫界展望 (2)

城大醫學部病理室 李在崐

限地開業醫師中官公職에奉職者가 四百餘名이고 公醫가三百三十餘名開業者가一千二百二十餘名이다。

限地開業醫는 朝鮮人이一百七十九名 日本內地人이八十三名 外國人이十一名合二百七十三名이잇는데 京畿道에三十三名으로朝鮮人이二十八名 日本內地人이四名外國人이一名이다

忠淸北道에는 日本內地人이三名 朝鮮人이九名 外國人이一名合十三名 忠淸南道는日本內地人이七名 朝鮮人이五名合十二名 全羅北道는朝鮮人이九名 日本內地人이八名 外國人이一名合十八名 全羅南道에는 日本內地人이十一名朝鮮人이七名合十八名 慶尙北道에는 日本內地人이十七名 朝鮮人이十名 外國人이二名 合二十九名 慶尙南道는日本內地人이十五名 朝鮮人이十五名 外國人이一名 合三十一名 黃海道가 日本內地人二名 朝鮮人이十八名外國人이一名 合二十一名 平安南道가朝鮮人이二十名 日本內地人七名 合二十七名 平安北道에日本內地人이一名

朝鮮人이二十一名 外國人이三名 合二十五名 江原道에는 日本內地人이二名 朝鮮人이十名 合十二名 咸鏡南道는日本內地人이四名 朝鮮人이五名 外國人이一名 合十名 咸鏡北道에는日本內地人이二名 朝鮮人이二十二名 合二十四名이다

醫生의分布狀態를보면 京畿道에 四百二十八名이잇고 忠淸北道에 一百六十一名 忠淸南道에 一百七十二名 全羅北道에 一百七十一名 全羅南道에 二百六十八名 慶尙北道에 四百二十一名 慶尙南道에 五百三十名 黃海道에 二百十八名 平安南道에 四百二十五名 平安北道에 三百七十五名 江原道에 三百五名 咸鏡南道에 三百十八名 咸鏡北道에 三百十四名

咸鏡南道에六百一名이라는 多數한醫生이 營業을하고잇는대 醫生의數는 全醫業關係者의六十九%以上의 高率을占領하고잇다 이事實을보더라도아시다십히朝鮮의醫療機關은참으로幼稚한것이다

齒科醫는 京畿道에 一百八名、忠淸北道에五名 忠淸南道에十五名 全羅北道에十五名 全羅南道에 十八名 慶尙北道에十八名 慶尙南道에 二十一名 黃海道에 二十一名 平安北道에三十一名 平安南道에 十六名 江原道에十名 咸鏡南道에 五名 咸鏡北道에 十七名 合五百五十七名으로 朝鮮人이一百十名 日本內地人이四百四名 外國人이三名이잇스며

入齒業者는 京畿道에二十六名 忠淸北道에三名 忠淸南道에 二十名 全羅北道에十三名 全羅南道에十九名 慶尙北道에二十三名 慶尙南道에十八名 黃海道에十七名 平安南道에四名 平安北道에十名 江原道에十二名 咸鏡南道에十三名 咸鏡北道에 十二名 合一百九十一名이라는 統計가잇다

藥劑師의 數는 朝鮮人이五十八名 日本內地人이二百八名 合二百六十六名이며 賣藥業者는 日本內地人이三十五名이며 藥種商은 朝鮮人이八百七十五名 日本內地人이五百二十七名 外國人이三名 合一千四百五名이잇다

產婆의總數는 一千五百十六名으로 朝鮮人이一百七十三名 日本內地人이一千二百四十三名이며 看護婦數는 日本內地人이 九百三十九名 朝鮮人이二百七十三名 外國人이二十三名 合八百七十二名이다

꼿으로醫師一名에對한 人口의 比例를 世界各文明國과 對照하야 紹介하면 朝鮮서는醫師一名이同胞一萬一千二百餘名의 健康을돌보아야만하는데 亞米利加合衆國은 醫師一名에對하야 人口八百名의

比 이고 『오스트라리아』에서는 九百餘名의比 英國은一千餘名、瑞西는一千二百五十名、독가리는一千四百八十名、獨逸은一千五百六十名、佛蘭西는一千六百九十名、和蘭은 一千八百二十名의比例라고하니 이統計를본다면 얼마나朝鮮에醫師가 不足하다는것을容易하게 想像할슈잇는바이다。

朝鮮의地理的變遷

"四" 天台山人

그럼으로 資本主義經濟의基礎가업는곳에는 民族도또한存在하지못한다 그럼으로 民族은 社會의 經濟的發展의 特定段階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聯合體다。다시 말하면『民族槪念은 一定한 自然的基礎 例컨대 土地特히同一한地勢氣候 種族等에基하야 歷史的社會的發展過程에서 發生한多數人의集合體다 그럼으로 一民族의構成까지에는 多數한種族의征服과融合을過程하며 一定한融合過程에서 同一한宗敎、言語 風習 性格 制度로訓練한 所謂 文化共同態』로는 運命共同態를일운다 옷토·바우엘氏와갓은이는 民族形成의基礎를 一種의自然共同態할세 그는 어느一定한地理的生活圈內의 血統과및 出自의共同態로서 그共同態는生活關係와및民族的運命의 關係를 同一히한데서 점섭一種의運命共同態와 文化共同態가되엿더라하엿다 바우엘氏의大意는—

『끈기업시 交通往來하는동안에 共同한言語가생기고 끈칩업시 서로婚姻하는동안에 血緣의共同態가되며 同一한土地에居住하며 共同한敵과싸우고 同一한運命에逢着함으로써 同一한 性格을練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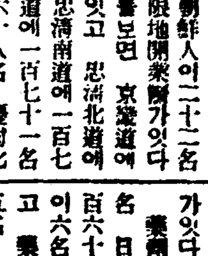
그러나 民族時代를지나서 農業社會에들때까지도 農民의婚姻 交通이小地域에限하기때문에 各地에固有한農民種族이란 特殊型이생기고 各地에特殊한 慣習이생기고 所謂地方色이란 것이생긴다

그러나 騎士가國家의軍隊를形成하고 全國大諸侯의 封建的會議를열고 騎士만이 文化를獨占하고 集合、接近하는동안에 騎士風의 言語、性格、文化를가저 對內的으로는 農民과區別되고 對外的으로는 外國의文化習俗과 다르다는民族意識이 萌芽되다 그러나 都市의 發興과 商品生產의 發生에伴하야 諸侯權力이 沒落되고 騎士、軍隊가 撤廢될때는 所謂資本社會라 民族文化 또는民族思想의支持者는인제는騎士가 아니요 富裕하고敎養잇는都市의 大小市民이엿다。特히 近代的資本主義가 展開된後 交通은 極便해지고 農工은大量生產되고 勞働者가 생겨남의 農士에서 分離되자 敎育制度가 改善되고 勞働者도 점점政治的、文化的生活에 參加하게되면서 民族的文化共同態의 範圍도 擴張될뿐이다。畢竟 民族은 運命共同態에서 成長한 性格的共同態다。또는 歷史的運命은 性格的 共同態바게 民族的同屬感情 即民族感情을 形成한다。各個人이感知할나말나한 本能的民族感情도 처음에는 自己所屬의 集團과 他集團과區別할境界선엿스나 乃終에는 擴大되여 內部的結束이强해짐을따라 自他民族의特徵잇는 性格이 일러짐을따라 本能的感情이 同類同屬의意識으로變하는것이다。

그러나 여긔對해서도 兩種의反對說이잇다。一은生物學的見解에서 民族을同種의出自에基한一種의 血統共同態라고보는이와 一은 칼—、카우츠키와가티 一種의言語共同態라고하는 理論家들이다 카우츠키氏는 바우엘氏를 駁하되 一種의運命態의것은 社會的形成物의全部니 氏族、村落團體、國家、組合、乃至 株式會社까지도 그러타고 할것이요運命及文化의共同態로 말하면 獨逸系瑞西人과 佛蘭西系瑞西人과는 그民族性이 다름에 不拘하고 運命及文化의 共同態가 獨逸系瑞西人과同系維也納人도獨逸系瑞西人과홀스타인보담 더緊密하며『슈레스윗히』에사는獨逸農民과 丁抹農民과의文化共同態가 슈레스윗히에잇는農民과 伯林에 잇는獨人操舫業者及藝術家들보담 더緊密한것이아닌가라고 그러나 바우엘氏는 民族을그대로 運命共同態라고는 하지안헛다 거긔서生長한一種의性格共同態라고햇다 다만거긔에는 一民族이 自餘의民族共同態와는 別個로區別할一定한普遍的인 性格的特性이 잇슴가 업슴가 그特性이 自己民族員사이에 共通한것으로 結合한것이라고 늣기는데 反하야 自餘의民族員사이에 全然關係가 잇슴가 업슴가 가問題다 카우츠키에依하면 民族的性格이란것은 存在할수업고 그러타고 民族이一種의內容空虛한幻想도아니요 그는言語의共同態라하엿다

即『우리가 즐겨쓰고 또 잘使用하는言語를交換함에依하지안코 그外에무엇으로 民族性을交換할수가잇느냐』라고

(略)言語替換이民族意識또는民族特徵을脫하는 重要한一步는될지언정 그全部가 되지못할것은 明若觀火다。英人이獨乙에定住하야 항상獨乙語를쓴다고 대번에 獨乙民族의一員이되는것이아니다



黑鳳

韓龍雲 作 金熊超 畵 (47)

강도(强盜) (四)

『네가 나의 네동생을 빼앗어 올때에 나의네동생과 정혼하얏든 리한숙의 아들을 돈잇는집 처녀에게 소개하야 장가를 드려준다고 하얏다지』

하는 왕한은 딴포도를 끄내어서 마죽어가는 은석에게 무럿다

은석은 분한것으로는 대답할 생각이 업고 아푼것으로는 대답할기운이 업섯다 그러나 무서운것으로는 감히 대답을 아니할수가 업섯다

『그런일이 잇섯스나 한숙씨가 승락을 아니하야서 고만두엇소』

『아니다 그당자인 리상철이가 여기잇스니 지금당장 돈잇는집 처녀에게 장가를 드려주어라』

『그러나 지금당장이야 엇지할수가잇소 그러면 차차 소개하야 주지오』

『차차가 무엇이냐 이 다음일을 누가 아니 지금당장 하여라 내가 드르니 너의 딸이 잇다는구나 너는 정혼한 나의 동생을 빼앗어다가 여러째첩도 삽엇는대 정혼도아니한 너의 딸을 남의 안해로 소개하는것이야 정당한일이 아니냐 드를테냐 안드를테냐 만일 안드르면 이주먹으로 당장에 따려죽이고 네 딸을 빼앗서가것다』

하고 왕한은 주먹을쥐고 기운이업서서 눈도못뜨고 누어잇는 은석의압호로 달려든다

은석은 너무도 기가막혀서 말을못한다

『혼인도 혼인나름이지 이런혼인이야 언제 승락을밧고 륙례를 가추어서 하것니 이놈의집은 혼인도 강제로하는놈의 집이니까 이번혼인도 강제로하잔』

하는 왕한은 벌떡 이러서서 안둘을 박차고 한다름으로 안집으로 드러갓다

그집녀자들은 안마당에 모아서서 사랑에서 이러나는일을 엿듯고잇섯다 그중에는 무론 은석의딸도 잇섯고 영애도 잇섯다 그들은 은석을위하야 걱정하고도 무서워도 하얏다 그리하다가 나종에 왕한이가 은석에게 하는말을 드럿다 그말을 듯고서 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업섯지마는 은석의 둘재딸은 벌벌떨면서 도망하라고 하든판이엇다

그들은 왕한이가 뛰여드러오는것을 보고서 질겁을하야서 고양이를 만난쥐들처럼 움직이지도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얏다지나치게 무서워서 떨기조차못하얏다

왕한의눈에는 먼저 영애가뵈엿다

『영애냐 잘잇니 은석의 둘재딸이 누구냐』

하는 왕한은 여러사람을 돌너보다가 눈이 처녀인 은석의 둘재딸에게가서 멈춘다

『옵바 이게 웬일이오 조금참으서요』

하는 영애는 왕한에게 매여달닌다

『이년아 너는 부자놈의첩이되야서 호강을하니까 조오냐 참는것이 다 무엇이냐 너는 시집을 와꺼니와 너의남편 되라는사람도 장가를 드려야지 은석의 딸년이 누구냐 어서 말해라 말을아니하면 너먼저 죽여버리것다』

하는 왕한은 매어달니는 영애를 뿌리치고 주먹으로겨눈다

『저게기여요』

하는 영애는 겁이나서 몸을 옴추리면서 왕한이가 주목하든 처녀를 가리친다

왕한은 소리개가 병아리를차가듯이 영애가 가리치는 처녀의 머리채를 번적들고 사랑으로 나가서 은석의압에노앗다 그처녀는 숨소리는 조금 놉혀스나 얼골은 빗흘일코 정신은흐미하얏다

『이것이 너의 딸년이지 지금 시집을 보낼터이니 페백으로 논마쥐 내어노아라 너의사위될사람은 아다십히 너의 소작인으로 구차하니까 페백을 주어야 될것이다 돈을 아니내면 아니될터이니 아라하여라』

하는 왕한은 주먹을들고 은석에게로 달녀든다

은석은 분하고 부끄럽고 무섭고 아푸고 괴로워서 정신상태가 어떠타고 말할수가 업섯다 그리하야 은석은 의식이업는 허수아비 처럼 왕한의 하라는대로 따라가게 되얏다 은석은 하인을 불너서 금고쇠때를 주면서 금고를열고 돈만원을 내어노라고 하얏다

六月二十二日(土)長谷川町公會堂
『原稿提出』六月七日까지『佛專學生會』에

第三回全朝鮮男女『專門學生雄辯大會』

主催 中央佛敎專門學校學生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詳細追後發表)

當選謝禮
謹啓今般郡東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光榮에浴하엿기로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黃[illegible] 宋[illegible] 崔[illegible] 吳[illegible] 田邊九右衛門 吳[illegible] 北川炳[illegible] 尹[illegible] 張[illegible] 田中[illegible]

當選謝禮
道岩面協議員
金三洪 尹在[illegible] 尹英[illegible] 李[illegible] 金[illegible] 金[illegible] 尹[illegible]

當選謝禮
謹啓今般咸東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氏의同情으로當選의光榮에浴하엿기로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劉載義 羽田幸次郞 執行末吉 金安植 [illegible]

河東面協議員
余環燁 姜部馨 李輔淳 姜祥秀 余鍊鎬
黃學性 朴來秀 白石傳次郞 三瓶守正

赤良面協議員
李源模 金淳鳳 尹炳稷 鄭鎔永 鄭在敏 蘇秉賢 姜致璜 [illegible]

岳陽面協議員
[illegible]

古田面協議員
高順悅 鄭世基 外協議員一同

橫川面協議員
李東默 李康烈 宋相洙 鄭淳睦 李順秀

辰橋面協議員
金廷鉉 金昌海 李鍾煥 朴相鐵

北川面協議員
李巳一 姜泰信 鄭贊錫 姜道燮 金點相 金畔善

玉宗面協議員
張昌誠 郭烽 梁海龍 權洵容 [illegible]

靑岩面協議員
崔大錫 金永斗 金君則 梁春煥 金永洛 朴在鎌 河萬植 姜在根 鄭尙福 姜再守

良甫面協議員
鄭大鎔 金順嘉 崔命煥 金小默 李丙仁 金喆奎 李炳鶴 鄭基軾 鄭源生 金萬珍

花開面協議員
姜大亨 具孜台 鄭中錫 孫正炯 鄭斗一 鄭燦玟 李容根 金正煥 金梓勳 文基玉

禮山郡揷橋面協議會員 (無順)
村上良右衛門 [illegible]

禮山郡古德面協議會員
李殷宰 朴英浩 金重植 吳明淳 李鍾鳳
金敬斗 崔翼文 李鍾弼 朴英圭 申鶴均

禮山郡鳳山面協議會員
金鳳來 金南阜 申玉均 黃鍾式 韓聲東
宋必憲 李楨馥 朴仁和 姜應善 李容求

六月四日부터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一時半 午後七時半
快心의二大名篇의映畫 M·G·M超特作日本版
巨匠그리피스 [illegible] 名花 그로—리아·[illegible]主演
杜鵑의노래
원더빠ㅣ
團成社

六月五日부터名畫封切週間 畫夜三回興行
코럼비아會社超大作全發聲日本版
見은世界에第一
RKO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七時가되면죽는다
躍る鬼神 前篇
優美館

咸南十二水組負債額 未償金만七百萬圓

今後二十年間을延期하야도 一段當三圓半의負擔

【咸興】 작년말현재중계에의하면 함남십이개수조(水組)의채상환액은 신칠백구천육백오십칠원이며 아직상환미제액은 칠백십칠만구천이백삼십삼원으로 전부에저상환년수를연긔하여야할형편인바 금후이십년간을 연긔한다고하야도 조합원의부담은 일반보(一反步)당삼원오십전가량이되리라고한다

三個年繼續事件 都市裝飾計畫

【晉州】 진주읍에서는 지난오일 오전십시반에 선거후 처음으로 읍회를소집하고 여러가지 의안을 토의하엿는데 그중중요한것은매년인구가 증가하야 현재삼만에갓가운 인구를 헤아리는도시임에도불구하고 아즉까지 모든시설이불비하므로 십만원을십년년부로긔채하야 소화십일년부터삼개년 계속사업으로 근본적 하수도시설、시구획정、가로개수 정리、위생시설등에 진력을다하기로 만장일치가결하엿다 한다

洪城公會堂竣工

【洪城】 홍성지방의 현안이든공회당은 저간건축중이라함은 긔보한바잇섯거니와 수일전에 준공되엿슴으로 팔일오후한시에 드디어낙성식을거행키로 되엿다

元山樓氏女普校 蘇生의喜悅에넘친 義捐金이又復還至

【元山】 금춘이래 미국선교부로부터오든 보조금이 중지되여잡시폐교의비운에빠젓든원산루씨녀자보통학교(樓氏女普)에대하야 그동안 사회각방면의 독지가로부터 의연이 답지하고잇다함은 수시로보도한바어니와 요지음또한 좌기와가튼 의연이 잇서서학교당국자는물론 일반은 그독지에 감사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百圓 金景俊 ▲百圓 元山館 ▲二百五十圓 元山米穀商組合

로정에진 부채만도 륙백여원으로 금기아외상거래까지 거절을당하게되야 술을마시고십흐나주머니에 돈업고 궁한나머지자긔의신분도 도라볼사히업시 남의자전거한대를 훔처팔어먹엇다는혐의로 그가리 취조를받고잇다한다

本報讀者優待

【笠巖】 충남천안군립장시는 의료(醫療)긔관이 불충분하던바 김회영(金鍾榮)씨가 얼마전에 당지에공의로부임하엿는데 금번개업을 자축하는의미로 특히 본보독자를 위하야 오는십일부터 금번행할까지 자청무료 약가반의추선로 우대한다 하며 극빈자에게는무료로시료한다고한다

新浦市民運動會 八、九兩日에開催

【新浦】 긔보=신포시민대운동회는 팔일오、륙、칠양일간 개최예정이엿스나 운동장관계로 오는팔、구량일로연긔하야 첫날은씨름、다음날은자전거경기대회를하고주최측에서는그만두기로 결정되엿다는데 지방선수의 다수참가를 바란다고한다

禁酒宣傳行進

【文川】 지난팔일부터、이、삼일동안을 덕원금주회양소교회(德源郡文坪耶蘇教會)에서는 금주선전데ー로정하고 문평시는물론 부근촌락에까지 긔어긔하여 총유칭하여 금주선전가를부르며『술을먹지말자!』는 선전삐라를 산포하며 가두선전행진을 하엿다고한다

元、宮兩公普校 改、增築을實現 工費十二萬六千餘圓

【開城】 개성부에서는 다년간현안중에잇던 실업학급남녀공학제를실시하기위하야 십이만륙천여원의공비로원정공립보통학교(元町公立普通學校)는 개축하고 궁정공립보통학교(宮町公立普通學校)는 증축하리라는바 원정공보가 연평(延坪)칠백삼십구평 궁정공보가연평(延坪) 사백삼십이평이라하며 교사는량공보를모다이층연와로건축하리라한다

楊口商工組創立

【楊口】 강원도양구(楊口)는령서중앙의상공지대임에불고하고 우금이 통제하는 아모기관이업슴을 유감으로 여여오든바 지난오일에상공업자 련합위유회(聯遊會)를개최한긔회에 김성련(金聲鍊)씨사회하에 양구상공조합(楊口商工組合)창립총회를 아울러개최하고 제반사항을 원만토의 하엿다는데 임원은다음과갓다 한다

組合長 金聲鍊 副組合長 金冀煥 會計 朴萬善 評議員 尹熙烈 外五人 顧問 李瑾洙 外二人 幹事 金成萬 安光雨

市民慰安活寫 大盛況裡閉幕

【瑞山】 긔보=본보서산지국에서는 사옥신축락성긔념사업의하나로 시민위안활동사진대회를 지난삼일에개최하기로되엿든바 마층우천관계로 중지하엿다가 사일에 개최하엿는데 관중이 무려오백여명에 달하얏스며 본사촬영인 영남대수재실황(嶺南大水災實況、本社主催京城幼稚園聯合遊藝會實況) 기타등의 영화를상영하얏는데 관중은 만흔감흥을가지고 오후십일시경 대성황리에 무사폐회하얏다고한다

九十三名中毒中 死亡者이미七名

六名은方在危篤狀態 寧邊郡下中毒事件後報

【新義州】 긔보=녕변군 룡산면(寧邊郡龍山面)에서발생된중독사건은 지난삼일에 또나시룡산면룡등동(龍登洞)에네명의환자가발생되여 그중한명은그날밤에사망하얏고 사외에는룡광동(龍光洞)에서 또하명이사망하야 사망자총계는 일곱명이오 환자의총수는오일정오까지、평북도위생과에도달된보고에의하면 룡산면에팔십명、오리면(梧里面)십삼명합계구십삼명의다수에달하는데 이환자중에도 룡산면의 다섯명、오리면의한명은 매우위독한상태이라한다 도로부터급파한일고기수(日高技手)가도라온후에야 완전한진상이판명될터이나 대개이환자들은『부도마인』중독인듯한바 이지방에는 이러한일이자조발생되여 부락민들은공포에싸혀잇다한다

新義州에서도 中毒事件發生 十名中毒中一名死亡

【新義州】 녕변군(寧邊郡)에중독사건이잇는이때 신의주부내에서도 중독사건이 발생되여 각방면에 큰충동을주고잇다 즉지난삼일 신의주상반정(常盤町)어떤과자점에서파는『슈크림』이부패되얏든지 이날이것을 사먹은일본내지인 열명이모다 중독되여설사 구토를하며 그중한명은사망하얏다 신의주경찰서위생계에서는 그과자를 도위생과로보내여검사를하는중이라한다

瑞山支局主催 講演會大盛況

【瑞山】 긔보=경성리종린(李鍾麟)씨가 그고향인 충남서산을방문한긔회에 본사서산지국주최로강연회를 지난이일 읍내장전판매장에서 개최한바 당일오후팔시반 정각이되자 모여드는청중은 무려사백여명에 달한중 본보지국장 신항균씨의 개회사로 강연이 시작되자 청중은 씨의의미심장한 열변에 도취되야 긴장하얏스며 일반의만흔 감흥을주고 오후십시반 종료한후 여흥으로 본사뉴스활동사진 영사를맛추고 동십일시 대성황으로 폐회하얏다고한다

金藍岡女史美擧

【梁山】 경남량산읍에서 양산주조장(梁山酒造場)을 경영하는 김람강(金藍岡)녀사는 두해동안이나수해로인하야 곤궁에싸저잇는 량산면중부동(中部洞)공민 일백삼십칠호의 제일긔호세를 대납하겟다고 지난삼십일에 면사무소에출두하야 자원하엿다는바 면민의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平壤崇實專門主催 全朝鮮中等庭球 申請期日十日로迫頭

【平壤】 평양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에서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오는십오일(十五日)동교『코ー트』에서개최하는 제일회전조선중등학교생개인정구대회는 신청긔일이 십일로박두함을따라 시내각중등학교는물론 경성(京城)개성(開城)사리원(沙里院)북으로 신의주(新義州)선천(宣川) 정주(定州)진남포(鎭南浦)등각지에서 신청서가살도하고잇서 대성황을예긔하고잇는바 아즉신청치안흔학교에서는 금명간속히제출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昌原地方에는 麥豊으로雀躍

【鎭安】 경남창원지방에서는수년동안 한재와수재로 빈궁에처하야 일반농가에서는 금년맥작에큰긔대를갓고잇든바 진해를중심으로 남면(南面)웅동、웅천、천가(熊東、熊川、天加)등지는수년래희유의 풍작으로 지난이일부터추수에분망중이라한다

遊興費不足되여 府廳員窃盜질

【大邱】 지난사일밤대구서에서는동연 대구부청재무과(財務課)에근무중인 고교근(高橋勤)(二二)를구인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이라는데 전긔고교는 멘쓰되지안는수입으로 유흥에침혹되여 부내각

全新義州市民運動 脚戲와鞦韆大會

觀衆數萬인第一日의盛況

■脚戲大會■ 【新義州】 신의주의전시민을 총동원한 신의주체육회주최『씨름과그네』대회는 긔보와가티 지난오일、오전열한시부터 신의주역전대광장에서 개막된바 관중은 사방으로부터구름가티 모혀들어 넓은광장은 문자그대로 사람바다를일운중에 예정대로 경기는 시작되얏다 오전열한시 아동씨름이 끗난후 정식에선전이 시작되얏는데 일곱사람을 련승하야예선에 입선된 선수의씨명은 오후일곱시까지 다음과가튼데 룡호가 상박하는 장쾌한경기가 끗날때마다 관중의 박수환호는 국경천지를 뒤흔들엇다

第一日豫選優勝者

一、鮮于殷福 二、金明德 三、鄭利瑞 四、趙龍浩 五、孫英杖 六、金泳八 七、金燦學 八、田亨睦 九、劉京烈 十、吳用奎 十一、文基中 十二、李明琇 十三、李昌根 十四、金千日 十五、方通範

■鞦韆大會■ 씨름대회가열니는일방 이날정오 대회장 락창하(樂昌河) 부회장박룡운(朴龍雲)、위원리재규(李載奎)씨렬석하에 추천대회를 개최하얏다 공중에놉히소사 만인의 찬탄을받는 국경부인들의 장쾌한묘운은 유쾌하기 한량업는중 이날오후다섯시까지 제일일예선의우승자는 다음과갓다

一、金錫姬 二、金永淑 三、金奉玉 四、金貞淑 五、朴永福 六、鄭龍三 七、李貞女

大會任員

도한금번동대회의 임원은 다음과갓다

總裁金基滿 副總裁崔昌朝 會長卓昌河 副會長朴龍雲 委員長李載奎 總務鄭元燮 審判金興洙 孫斗星 趙衡鎭 金聚瑞 財務安秉瑞 張龍浩 接賓金基畝 鄭道元等三十名 接客委員白昌俊二十名 記錄係各新聞支局記者

第二日經過

【新義州】 당지씨름대회의제이일인륙일은 오후한시부터 속행하야새로히십칠회로안동상에쓰(安東三八) 김준익(金俊益)(三二)이가입선햇고 십팔회로는 당지 고유권(高有權)(二一)이가 입선되얏다 제일일에 최후로입선된 열여섯재번 입선자는 대창약방(大昌藥房)의 정영삼(鄭永三)(二二)이다 추천대회도 륙일오후한시부터 속행하야 오후 다섯시까지 계속하고 비로인하야 일단중지하고 다음날로 연긔햇는데 륙일에입선된부녀들은아래와갓다

李淑女(二三) 李永淑(二二) 金澤根(二○) 李竹花(二三) 金春河(二○) 崔淑女(二七) 金紅蓮(二○)

正體모를虫害로 苗板全滅에直面

道農務課에서는病虫調査中 憂愁에싸인平南農村

【平壤】 평남도내의 금년농작상황은 강우량의부족으로 극히우려되엿스나 최근의 강우로 수미근되게되얏든바 천만의외에도 최근도내 전폭의수도 모판(苗板)은 전연명칭을 알수업는 해충(害虫)이 창궐하여 사、오량일간 강서군과대동군내의 모판은전멸의 현상에직면케되엿스므로 도농무과에서는 현장에 직원을급파하는 동시에 수원(水原)농사시험장에 급보하여 지금직원을 출장케하여 병충조사에착수하엿다 이불가사의의 해충은 더욱창궐하여 이、삼일동에 모판의 벼모는전부 백색(白色)으로변하여 말라죽고마는 무서운것으로서 전염성(傳染性)이 조금하다한다 한재로 냉해로 벌츰이 다완전한모판이 이제다시 해충으로 고사(枯死)하게되여 평남의 금년의수도는 전도가심히 우려되는터이라한다

勞組에핀同情花

病身乞兒를收容하야 病治療、教育도시킬터

【元山】 하로종일로동하여 자긔가족도 먹여살릴수업는 로동자가 자긔처지를불고하고 거룩한인류애로서 어린불구자걸인을구한 인정미담이 원산에잇섯다! 그는 원산어업조합소속인부 제이삼영조(第二三永組)원이십삼명은 부모업시떠도는 사고무친한병신고아가 차되찬한천하에 이집저집으로 단니며 문전걸식하고 밤이면공동변소를 유일한안식처로 정하고 무정한이세상을비탄으로 보내고잇는 안변오계(安邊梧溪)출생의 오석한(吳錫)을 남어지고 자자하는 조(組)숙직실에다려다가 자게하는동시에 매일적은 수입속에서 약간을거출하여 그를먹여주기로한후 작년겨울부터 다려다 양육하야오다가 다려다 양육하야다고한다 그런데다 그현대의학은 녀넘히그불구자를치료할수잇슬만큼 진보발달되여잇섯다 이에전긔 에서는 석한을고처서 완전한사람을 만들고저 위선십원을모아가지고 시내구세병원(救世病院)에 지난달이십일에 입원을시켜 수술을가하고 방금동원에 입원시켜다는데 동조에서는 석한이가 완쾌하야나오면 원산고아원에입원시켜 석한의장래에 자못명랑이 잇게하겟다고하는바 일반은 동조의 이미거를칭송하야 마지안는다

그女子의一生

婚姻篇 春園作 夕影畫 【125】

「그래。김광진이헌테 네집재산이 다 업서젓단말을 들엇단말이로구나。」

금봉은 고개를 수긴채로 끄덕끄덕하엿다。인현도「미인계」라는생각을 하엿다。

「그래 김광진이가 ─ 김자작의 아들이 네게 친절하게 하든가?」

「네에。」

「왜?」

「그건 내가 어떠케 아우? 그이가 본래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내게도 친절하게 하겟지。」

「그래。그사람이 ─ 김광진이가 네마음에 들든?」

「웨 바두。」

하고 금봉은 잠깐 고개를 들어서 눈을 흘겻다。

인현은 누이의 그 눈이 도모지 위험성을 띈것이라고 이번에도 생각하엿다。금봉이가 「다정한 여자」라는 것을 인현은 그 눈에서도 늘 본다。그 눈이 여러남자를 죽이기도 하려니와 필경은 눈임자인 저까지도 죽여버릴 눈인것가티 생각햇다。

누이를 불상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한 인현은 누이의 그 눈을변하게할수만 잇스면 변하여주고도 십헛다。금봉도 제눈의힘을 자각하엿다。이눈으로 한번흘려보는 날에는 어떠한 남자라도 제압에 무릅을 꿀지아니치못할것을믿고잇다。

『하나님이 웨、무엇하라고저런 아름다운、매력잇는 눈을만들엇슬까。어찌하엿스나 그것은 상서로운일은아니다』

이처럼 인현은 금봉의 눈을볼때에는 생각하엿다。인현은지금은비록희미하지마는 죽은어머니도 눈은도저히 금봉을 따르지못하엿다。금봉의눈은 누구를 달른것일까。거어 다닐때부터보는사람마다、

『아이눈두 잇브기두하다』

하는칭찬을 하엿다。손명규도그눈에서 나오는 무서운 금줄에 끌다리를 차찬감긴 사내라고 인현은 생각한다。만일 김광진이가 누이의 이눈을 보앗스면、누이가 김광진에게 이눈의힘을한번만 썻스면 반드시벌서 꽁꽁묶엇스리라고 인현은 생각한다。그리타하면 금봉의눈은또한 마의 희비극을 연출하고야말것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인현은、

「금봉아 너 다시는 김광진을 만나지말어라」

하고 명령조로 말하엿다。

금봉은 인현이가 제 속을 꿰뚤고 들여다보는것가타서 무서웟다。인현의 말 뜻을 알앗다

하고 금봉은 서우룩하엿다。

「안 만나지오」

인현은 정색하고

「김광진이 뿐아니라、너는 도모지 젊은 남자를 안만나는것이 조흘것 갓다。웨 그런고 하니 너는 넘어 미인으로 태어낫다。더구나 네 눈에는 무서운 힘이 잇서。남자를 고혹하는 무서운 매력이 잇단말이다。네가 동경 갈 때까지는 ─ 처음 손가하고 혼인할 때만해도 그닷지는 안터니 지난 일년 동안에 너는 더욱 변하엿서。네눈에는 더욱무서운 힘이 생겻서 그것이 너를 대하는 남자들헌테만 화근이 아니라、필경은 네게 화근이 될것갓단말이다。손가를 만난것만해도 네 눈때문이지마는 그것은 서막이란 말이라는 입이 비극배우로 등단을 한것만 가티 느껴지는구나。깟다 잘못하면 너는 여러남자를 파멸시키고 ─ 대단히 방정마즌 말갓다 마는 ─ 마즈내는 너 자신을 파멸시킬것 가티만 생각이된다。네 미가 네게 복이 되는것보담 화가 되기가 쉬단말야。어머니는 안 그러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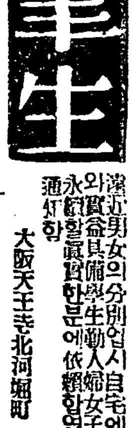
하고 마치 상장이가 상을 볼때에 하는 모양으로 눈도 끔적하지아니하고 금봉을 바라본다。

금봉은 올바가 제 어여쁨을찬양하는것만은 깃벗스나 그 어엽븜이 화의 원인이 되리라는말이 마치 꼭 들어마줄 예언만 가타서 목이 옷사할을 깨달앗다。김광진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무대에 나선것도 부인할수 업섯다。웨 그런고 하면 김광진과 밤 늣도록 이야기한 뒤로부터는 금봉의 마음에 그 그림자가 살아지지아니하고 저항하기어려운 유혹의 힘을 가지고 저를 끌고잇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그 박계도 인현의 말대로 하면 심상태、조병현、임학재 가튼 인물들이 다 금봉이가 주연하는 연극에 각기 한 소임씩 마는 것만 가탓다。

喰ふか喰はれるかこれはガソリンの話

シボレー特約販賣店
京城モータース株式會社
京城府古市町 電話本局二五九五・三六四四・三九二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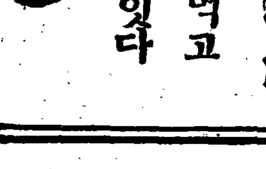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電光一一五九



潔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곳되는趣味와實益具備學生勤人婦女子最適한일永續할眞實한분에依賴함업서로申込乞詳細無休通知함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學校의成績은頭腦第一이오◆머리가무겁고가려서마음대로工夫가아니되는時에는곳
ノーシン(노신)
을잡수시오◆頭腦가明快해저서工夫가잘되고 藥店에니다잇소◆

六月七日낮부터三日間 每日三回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大衆料金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松竹키네마超特作 大東京市制實行記念祝賀製作 原作並脚色監督ー野村芳亭
東京音頭
伏見信子 岡讓二 竹內良一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하워드혹스監督
광명을배반한다
월라유스통 主演
……豫告……
朝鮮劇界權威 劇團 黃金座大公演 朝鮮名劇 無花果 파社特作
仁寺洞 電光二三六
朝鮮劇場



國手라도 はれやか 늘먹고있다

北朝鮮과 東北滿洲 ……〔八〕……

去益加重하는 經濟的重要性

咸南利原의 鐵山은 利原鐵山株式會社에서 稼行하는 것인데 鑛質은 赤鐵鑛으로 鑛量이 만커 年産額 四十五萬餘噸을 算하는바 主로 八幡及兼二浦製鐵所에 供給되고 잇다.

其他端川郡에는 三菱所有의 多數의 有望한 鑛區가 散在하야 잇는바 地理的及經濟的 諸般의 事情으로 아직 採鑛에 着手되어잇지안타.

石炭 石炭層의 分布는 非常히 넓어 北道에는 吉州、明川炭田、會寧炭田、鏡城炭田、慶源炭田、慶興炭田等이 咸鏡線沿線을 南에서 北까지 各處에 散在하고 南道에는 新興郡加平面에 咸興炭鑛及文川郡都草面文川炭鑛等이 分布되어잇는바 咸興炭鑛은 鑛量이 자못 豊富하고 또 品質이 優良하야 그 需用은 朝鮮內各地에 亘하는바 年産三十萬噸에 達한다. 그리고 北道의 것은 모다 有煙炭으로 現在稼行中의 것은 吉州、明川의 內外鑛業의 二鑛을 擧할수잇을뿐이나 그 埋藏量은 全體에 잇서

有煙炭 咸鏡北道 三億七千三百萬噸
有煙炭 咸鏡南道 一百萬噸
無煙炭 咸鏡南道 三百萬噸

含油頁岩 咸鏡南道의 咸興炭、咸鏡北道東關鑛山은 含油頁岩을 來有하는同時에 二千米內外로 朱南湖坑의것은 다一므 分約七%를 包含하얏다.

雲母 咸鏡南道端川郡을 主產地로 金雲母를 産하는바 甲子、吉州의二鑛山이잇다.

막네싸이트 咸鏡南道端川郡의 北斗日面、惠山鐵道沿線附近에 品位及鑛量이 모다 滿洲大石橋鑛床에 匹敵하는 世界的鑛床이 發見되엿는바 調査에 依하야 示現된 部分만으로 六億五千七百萬噸、推定鑛量、二十億噸이라稱한다. 目下本鑛區의 開發을 民間企業家가 進行하야 一個年二十萬噸을 日本內地로 輸出하고잇다.

其他北朝鮮地方은 亞鉛鑛、水鉛鑛、石灰石、高嶺土、텅그스텐鑛、滑石、螢石等多種豊富한鑛産資源을 包藏하야 適宜히 利用開發하면 어느만큼 豊富한水力發電力의 利用과 相俟하야 鑛業的發展도 期待된다.

北朝鮮은 日本海에 面하고 그 沿岸은 東北으로부터 西南으로 延하야 北緯四十二度로부터 三十九度에 이르는새 東經百三十一度로부터 百二十八度에 亘하야 西方으로 기피 灣入하고 海岸線이 長大하며 그앞바다는 比較的 遠淺의 部分이 만하 百尋線以內의 海床이 자못 廣闊한데다 沿海는 一帶에 東北方의 沿海州沿岸으로부터 南下하는 리만海流와 南으로부터 北進하는 對馬海流에 사끼우기 때문에 寒暖兩性의 水族의 分布가 자못 濃厚하야 거이 無盡의 漁利를 包藏하고 또 潮汐干滿의 差가 僅少하고 潮流가 緩慢함으로 漁業의 便이 크다 明治四十三、四年頃에는 漁獲高 百萬圓內外、製造高五、六十萬圓에 不過하얏스나 그後諸般의 時勢의 進運과 相俟하야 漸次漁業 加擔招來하야 爾來年年 長足의 發展을 遂하야 最近에 잇서서는 一千萬圓의 漁利와 一千三百八十萬圓의 製造高를 不하게되엇다

以上과가티 其地勢海況은 漁族의 回遊棲息에 適當하고 分布가 濃厚하야 漁業에 好適한 要件을 具備하얏다 往時는 漁民、漁船이 完全치안코 漁法도 拙劣하야 明太魚外 볼만한것이 업섯스나 近者에 이르러서는 漸次改善되어 現在 旋網類、曳網類、定置漁網類의 各種延網、一本釣等의 構造로 곳치고 漁法도 同樣改良되고 漁船도 改良型을 使用하는 者가 增加하고 構造도 堅牢하게 되어 自然 앞바다에 出漁하게되고 漁業區域도 擴大되어 改善發達을 보아 舊來의 面目을 一新하려는 機運에 잇다

▲咸南北道主要漁獲物數量價格 (昭和八年)

	數量	價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鯖口	[illegible]	[illegible]
明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鼠	[illegible]	[illegible]
和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牡蠣	[illegible]	[illegible]
海藻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illegible]

二重打擊밧고잇는 朝鮮農家의 養蠶業

基準協定에 不當한 壓迫을밧고 ◇…絲價暴落이 加重

朝鮮의 春繭共販基準協定은 去月三十一日二十二掛로 落着된것은 旣報한바이데 그內容은 平均絲價 五百八十四圓以上六百十六圓未滿까지를 標準으로 하야 三十二圓未滿을 一掛로 하야 掛目을 增減키로 한것인데 最近의 橫濱生絲市勢는 落潮를 示하야

一、米國財界動搖不安
一、海外商行의 停頓
一、日本內地新繭減產에 依한 新絲價騰豫想이든것이 新繭豊富로 新絲暴作豫想으로 轉換된것

等에 依하야 惡材料兩面이 一層 顯著케되얏을 떨어三日과 如함은 前月大引價가 當限五百三十五圓先限五百六十四圓으로 平均이 五百四十九圓五十錢으로되어 基準價六百圓에 比하면 實로 五十圓五十錢의 暴落으로서 二十一掛에 相當하며 七日前場大引橫濱生絲市勢는 當限五百七十六圓先限五百五十九圓으로서 平均價가 五百六十七圓五十錢이되어 二十二掛박게 안된다

그러지안허도 掛目協定에 잇서 製絲家側의 生産費를 日本內地보다 過度히 計上하야 朝鮮農家의 養蠶家는 적지안흔 不利한 處地에 잇는데다가 米國景氣不安 日本內地新繭豊富로 因한 絲價低落까지 겹처서 內外二重으로 朝鮮의 農蠶家는 新繭出廻期에 際會하야 打擊이 큰터임으로 자못 憂慮된다한다 이제 參考로 絲價變動에依한掛目을 表示하면 다음과 갓다

絲價 圓以上	圓未滿	掛目
四二四	四五六	一八掛
四五六	四八八	一九
四八八	五二〇	二〇
五二〇	五五二	二一
五五二	五八四	二二
五八四	六一六	二三
六一六	六四八	二四
六四八	六八〇	二五
六八〇	七一二	二六
七一二	七四四	二七
七四四	七七六	二八

"各地春繭價協定"

總督府의 基準價에 依하야 西北各道는 尙未了

春繭의 地方協定은 總督府協定을 基準으로 各道에서 協議中이든바 七日아츰까지 協定이 成立된 道는 京畿、全南北、忠南北의 五道로 七日에는 江原道가 成立할것이며 慶南을 빼이고 主要產地는 모두 協定이 끗나게될것인데 比較的 産額이 적은 咸南北、平南北、黃海의 五道도 六月中旬까지 協定이 될모양인데 七日까지의 協定을 보면

▲全南=總督府協定을 基準으로 上簇改良證明이 잇는것(總出廻의 約六割)은 二掛增으로함

▲忠南=總督府의協定을 基準으로 總出廻의 一割까지에 對하야 二掛增으로하고 이에 對하야 絲價가 아모리 떨어저도 貫目當三圓을 不下할일

▲忠北=總督府協定을 基準으로 出廻의 一割以內 上簇改良의 特上繭에 對하야는 二掛를 增加할일

▲全北=總督府의協定을 基準으로 特別優良繭에 對하야 一割乃至二掛를 增加할일

▲慶北=總督府協定을 基準으로하고 總出廻를 四十萬貫으로하고 그中 五萬貫即八分一以內를 一掛增으로함

▲京畿=總督府協定을 基準으로하야 總出廻의 四割은 二掛增으로함

세멘트紛爭 調停交涉開始

最近調停案을作成

【電通東京電話】세멘트業界의 統制를 期할 세멘트工業改善委員會答申案이 지난四月二十六日成案以來 聯合會에서는 小野田뿔라고 全面的調停을 達成하라고 協議中이든바 最近압에와가티 調停草案을 作成하고 今月中間 小野田세멘트社長笠井眞三氏가 滿洲로부터 歸國함을 기다려 緊急交涉을 開始키로 되엿다 右調停案은 委員會答申案을 中心으로한것이며 그것이 成立될때에는 業界가 半歲에 亘하야 抗爭하든 小野田의 聯合會復歸第一步로될것인데 其要點은 如左하다

一、增產中止約을 一年延長
二、朝鮮의 開拓協定
(가) 朝鮮의 會社에 適用하는 生產制限率은 原則으로日本內地와 同率(年五割七分으로함)
(나) 生產中止前 [illegible]中의 直系傍系會社 또는 工場은 閉鎖치 아니함
(다) 負擔은委員會의 答申原案을 基準으로協定
(라) 出荷比率은 舊聯合會의 比率을基準으로함
三、滿洲國에關한協定은在滿各社의 統制機關을 組織하고 日本內地聯合會와 協定

朝鮮協定 問題要點

今後歸決注目

【電通東京電話】別項의세멘트聯合會의 小野田뿔락과의 協定草案中(一)의(가)增產中止一年延長案은 委員會에서 意見一致 何等問題가 업스나 (二)의 (가) 朝鮮에서 日本內地同樣五割七分의 生產制限率을 適用할 項目이 問題가 될것이다 即小野田은 朝鮮을 獨占的의 地盤으로 堅持하여온 關係上 委員會에서도 强硬히 反對하야 畢竟保留事項으로되엇고 現在 依然 日本內地의 半分程度(二割八分)를 主張함으로 今後折衝의 重要案件이 될것이다 그러나 小野田뿔락도 最近販賣戰에 疲弊해이며 또財界有力者中에는 세멘트界混亂을 憂慮하는傾向도 잇서 右事情에依하야는 局面轉換도 不可能치안흘것이라고 有望視한다

獨逸銀行의 모라 延長交涉

또압흐로 一年間을

【電通伯林六日發】獨逸國立銀行에서는 昨年以來實施되고잇는 對外債務交換延期가 六月三十日로써 滿了될터임으로 長期及中期의 外國債權者에 對하야 다시 一個年間의 모라토리움延長交涉을 開始하엿다 그리고 瑞西、佛國、英國等의 若干債權者間에 個別的으로 契約된 特殊債務에 關하야도 同樣延長을 求할터이다

商取引減退趨勢

工業界生產增加 米國經濟情勢를報告

【電通華盛頓六日發】米國商務省은 最近國內經濟情勢에 對하야 다음과가티 報告하엿다 商取引은 最近 減退의 趨勢이나 工業界의 生產高는 季節的으로 增加하야 賃銀의 支拂高도 多少 增加하엿다

朝鮮商議豫算

二千圓의增額承認

朝鮮商議常議員會는 六日 午前十時부터 午後六時에 亘하야 開催한 結果 事務取扱規程 事業及會計報告는 原案을 承認하고 總會提案十一件中 二、三件은 理由不明에 對하야 總會席上 提案者의 理由를 聽取한뒤 態度를 決定키로하고 其他는 全部贊成키로 決定하야 十年度豫算은 二千圓增額의 七千圓으로 決定하고 이에 伴하는 經費賦課徵收方法을 原案대로 承認하엿스며 常議員二名增員의 件에는 全然抵觸치안코 總會에서 詮衡委員을 뽑아서 選定케될터이라고한다

朝鮮內의 手形交換

平壤京城木浦增 其他는全部減少

【京城手形交換所調查】五月中朝鮮手形交換高는 二十四萬九千四百七十六枚 一億四千九十萬圓으로 前月中에 比하야 二萬一千二百十一枚 五百三十六萬四千圓 前年同月中에 比하야 二萬六百六十枚 二千三百九十二萬一千圓의 各增加이엇다 그러고 前年同月中에 比하야 各手形交換所도增加한바 前月中에 比하면 仁川、釜山、元山、大邱、群山이 減少하고 京城、平壤、木浦는 顯著增加하야 結局全體로는 增加케되엇다

米日爲替少弱

【京城六日發聯合】六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九弗十六仙으로 二仙低 買二十九弗十四仙으로 一仙低

▲東京爲替(七日)
對米賣 二十九弗
對米買 二十九弗八分一
對英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對英買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大阪爲替(七日)
對米賣 二十九弗
對米買 二十九弗八分一
對英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對英買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倫敦金塊 大幅低落

タ換算十四圓四〇錢

一時七磅九志四片(그대日英爲替로換算하야 ㄱ貨一タ十五圓三十六錢)에까지 올라 大暴騰을 거듭하든 倫敦金塊市勢는 그동안 反落에 漸落으로 不勢가 繼續되더니 七日入電六日의 倫敦金塊는 一온스七磅○志七片 一タ換算(朝銀對英爲替三値一志二片八分一로計算)十四圓四〇錢으로서 高價에比하야 온스에 七志九片、タ로 九十七錢의 反落이엇섯다

中國紡績不況

救濟策을講究

【電通上海六日發】金融市場의 逼迫을 伴하야 中國紡績業의 不況은 深刻의度를 加하야 操短과 減工等의 瀰縫策으로하드래도 벌서 救濟키 어려운狀態에 빠젓슴으로 國民政府는 財政、實業兩部도 그重大性에 놀내여 그救濟策을 協議하라고 六月十五日 南京에서 全國經濟委員會 紡績業統制會와 聯合協議를 하고 그뒤 紡績業代表를 召集하야 紡績業救濟에 關한 各種方策을 講究하고 救濟에 進出키로되엿다

經濟界消息

○朝鮮農會評議員會 朝鮮農會에서는 十五日評議員會를 午前十時부터 朝鮮農會에서 臨時總會를 열고 알에와가튼件을 附議할터이라고

一、昭和十年度朝鮮農會肥料配合特別會計收支豫算의件
一、朝鮮農會會則一部變更의件
一、肥料共同購入斡旋과 配合規定制定의件
一、借入金의件
一、昭和十年度收支豫算更正의件

今日財界 (七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一斤 價在來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塊價

金塊 一匁賣	十二圓七十錢	
銀塊 一匁賣	[illegible]	

◆株 (單位圓)

東新	[illegible]	[illegible]
米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新境地開拓難

恢復假態市勢

너무 業績의 實勢를 無視하고 事業株를 賣叩하얏스니 그訂正이잇스리라는것、增稅는 實施키難하고 急激한 財政縮少도될수업스리라는것 實過反動과 各會社側의 防備買等을생각하야 어데 意味에잇서 狂的市勢로 急反撥을 演하고 眞正한 恢復인것가티 假飾하는 現象을 보이는터이나 크게말하면 株式恐慌에 依하야 「돈」의 고마운것을 再認識하얏가는터이니 株界의 新境遇開拓은 至難視된다

一、歐米財界不安은 그대로 延長되어 언제나 解消될지 아득하며
一、財政政策은 비록 큰 增稅는 안는다드래도 藏相의 方針이 赤字公債漸減方針이니 株界의 鬼門이오 때때로 增稅소리에 動風되겟고
一、日中關係는 一時日中親善을 떠드러도 다 國威伸長을 期待하얏던 反動이 크지안을수 업스며
一、全面的生産過剩의 影響을 簡單히 볼수업고
一、株界의 資金涸渴에 依한 疲弊는 일즉 表面에 나타나지 안엇스나 今後取引員側에 僞人이 續出될 形勢이다

以上에 依하야 獨舞臺를 마음대로 利보아 實力이 膨大된 軟派는 機가잇는대로 戾賣方針을 固守할것인즉 여간해서는 假裝아닌 實際의 轉換은 尙遠할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그럼으로 一般으로서는 突入할境遇에만 反動을 狙할밧겟고 大局的戾賣方針을 變更할 必要는 업스리라는 弱氣論이 依然優勢로 잇는바 果如何?

株式 揉合裡에 細刻

商況 (七日)

前場反弛 昨日暴騰된뒤를 이어 今前場은 高價飛付警戒로 利喰急에 依하야 一息反弛이엇스니 即前後引에 比하야 東新六十錢低인 百四十圓三十錢、日產九十錢低인 八十九圓九十錢、大新六十錢低인 八十九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二十五圓五十錢一本이잇섯다

▲東新 一四〇·三〇(寄) [illegible] (引)
▲日產 [illegible](寄) [illegible] (引)

後場下澁 後場은 東新百三十九圓五十錢 大新八十九圓二十錢 日產七十五圓八十錢에 終落不勢寄後 下澁裡更高大引

高價는 買警戒 六十九圓九十錢(東京短期)이란 破格的低價를 示하엿던만콤 日產에는 惡目買와 會社側의 買物이 잇더데다가 昨日은 社債三千萬圓成立說까지 傳하야 一轉急騰의 好勢를 演하고 七十八圓二十錢에까지 올랏스며 東新도 百四十一圓三十錢(以上은 東京短期市勢)에까지 反撥되어 罫線上으로 買에 轉換된것이라고도 보이는터인데 이러케까지 當初市勢의 恢復은 容易치안흘뿐아니라 無期待이오 事業界의 根本的整理가 남어잇는限 眞正한 意味의 大轉換은 바라기어려울것갓다

日產增資株入札

日本產業株式會社는 資本金을 二億圓을 增加하고 七月五日現在株主에게 對하야 一對一의 比率로써 增資新株(十二圓五十錢拂込)二百一萬一千七百株의 配定을 함에 依하야 當所短期淸算市場株인 日本產業株式에 對하야 左記와 如히 取扱함

記

一、權利付賣買는 七月一日限으로하고 七月二日부터 權利落價格으로 賣買함
二、七月二日受渡後現在의 約定은 이것을 權利落價格으로 更新함(賣方으로부터 權利金에 相當한 金額을 徵收하고 이것을 買方에 交付함)
三、七月二日現在 代引株에 對하야 配定할 權利個數(舊株一에 對하야 新株一의 新株)는 入札方法에 依하야 處分함
四、入札은 七月二日前場大引後 取引所樓上에서 商議員立會로 取引員中의 希望者에 依하야 記名入札을 行함(希望株數「拾株單位」希望價格記載)希望株數가 配定株數를 超過할 境遇는 最高價格부터 順次이것을 取하고 不足時는 商議員會(又는 取引員組合)에 一任하야 適宜處分함
入札價格의 範圍는 最近七日間의 東京實物市勢의 平均價의 上下一割五分으로함
五、代引株에 對한 配定新株의 落札價格의 平均額(落札價格에 落札總株數로서 除한것)으로써 權利價格으로 定함 但毛位四捨五入
六、配定新株의 落札者는 權利代金을 直時取引所에 納入할것
七、代引株가 엄슬때는 商議員會(又는 取引員組合)에서 權利價格을 決定하고 賣方으로부터 買方의 引取를 不得함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六十枚

▲京城鐵道 [illegible] ▲旭紡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人造肥料 [illegible] ▲大同產業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亞殖產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實物薄으로 外債는五錢强堅이오 佛貨는利喰賣로 五錢下押되엇스나 米貨는爲替低로强調를呈하얏다

▲甲五分利 一〇三、八五▲一圓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一八六、〇五 ▲佛貨四分利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產	三五	三〇	五一、〇五〇
東新	四四	五〇	七四、九九〇
大新	三四	五九	八〇、五一〇

期米 少落後에 更强

前場少落 昨後場阪地二十九圓六十一錢止와共히 二十二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九圓五十一錢인 十丁反落을 報하고 二十七圓二十錢인 三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六十二錢으로 反高하엿다가 五十三錢으로 反落止함을 伴하야 二十六錢까지 返戾하엿다 反히 十五錢으로 十六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更强 後場은 二十七圓二十錢에 四丁高로 始開後 까지 同價이고 四等二十五錢 第二十七錢에 軟進이고 別價가 止場하다

仕手의 關係

渡米의 悲觀?

一月以來滿月大渡米의 壓迫을 加하야 當限戰마다 賣方이 慘敗를 當하든 期界는 客月末에도 相當한 渡米를 하엿음에 不拘하고 本月부터 意外에 渡米悲觀의 說이 濃厚한 一方阪地의 硬將田中貞、潮先、高橋等三派의 聯合으로 期近을 買占하는 關係로 在米의 潤澤云云은 爲有에 歸하고 바로 電光石火의 形勢로 阪地의 先高를 비롯하야 各地共히 一齊反撥을 示하엿다 果然 鳧騰의 度가 部邊에 止하게될지는 몰으나 政府의 第二次拂下는 不遠한 時日에 續行하게될것이오 豊作의 豫想第一期米의 移入은 例年보다 又一層旺盛할것임으로 買方의 不安도 업지 안흘것이다 要하면 今回의 反撥은 渡米의 悲觀보다도 仕手의 關係가 업지아니한즉 此邊의 戾價는 一時的現象으로 結局은 天氣順調의 本格的反落을 示하지 안흘가한 商談도 잇다 果如何?

移秧은 無難!

天候의 順調로

最近米界의 情勢를 一考하면 當市場으로는 渡米의 悲觀說이 意外濃厚하야 期近의 超然高를 示함에 至하엿다 時期가 後期이라 찰아리當然하다 [illegible] 할수잇스나 그러나 이로부터는 正米의 實勢그것보다도 天氣의 良否를 警戒하지 안흘수업슬것이다 實로 昨今의 天候는 全朝鮮을 通하야 好雨를 齎來하엿슴으로 少毫도 用水不足의 嫌이 업시 植付를 無難히 完了하리라는 樂觀說이 多하나 果然植付時期를 지나 靑田時代에 入하기까지 好順을 繼續하는때는 足히 豊作을 豫期할수도 잇는즉 硬派의 買煽인 渡米

市場六感

株 月條에 亘한 落潮로 表面玉整理가 一段落되엇다는 點에잇서는 누구나 異議가 업겟스나▲實過反動의 急反撥이 잇섯다고 이로써 完全底入이라하야 買方針으로 轉키는 尙早의 感이 不無▲金뿔럭崩壞에 對한 影響은 이미 充分히 豫想한터이지만 依然不安이라아니할수업슴이 事實▲財界變革을 이리면 大增稅는 안는다할지라도 財政政策變改는 否認못할 일▲『인후레』解消過程의 市勢를 顧慮할때 日中好轉이라하더래도 簡單히 볼수업는만큼 日中關係惡化와 아울러 前途는 悲觀而已▲近一年내리勝利한 軟派가 지나치게突擊함에依하야서만 反撥을期할수잇는이 市勢는 前途多難을 難免?▲東新百四十圓關門爭奪戰의 一幕이잇슬것도가트나 東新百四十圓이란賣에 有利함을 잇고신흔바 如何?

米 阪地當限은 三十圓大關門을 突破한 超然高를 示한다 此는 田中貞、潮先、高橋等뎐분이 釣上하는 모양▲同時에 當限渡米의 悲觀說이 濃厚하다 客月末까지相當한 受渡할 正米의 事情이 如是突變?▲時期가 時期라 그러할念慮도 업지안켓지마는 幾分은 硬派의 操動도 업지안은 모양▲오래동안 日本內地의 移出이不振하든 朝鮮米는 昨今에 入하야 多少買注文이잇는듯하다 ▲當地正米市場은 一昨日에 阪地로서의 相當한買注文이잇서 正米가 俄然暴騰▲몇대 此等의 買注文이 當限賣方의 所爲인듯 ▲賣方의 渡米蒐集이 如意한때는 今月暴騰하얏든 當限이 後日의 反落을 招來할지도 亦未知▲그런데 阪地二十九圓六十九錢과 當地二十七圓三十一錢은 當分間 小天井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닐듯 하다고 賣方은主張▲此에서 仲値狀態로保合을繼續하는때는 結局은反落乃已리라

各地正米

京城少弛 期米當限의 渡米不足에 對한 思惑買가 散見되나 物薄으로 取引이 잘되지안코 十錢反落의 訂正低이엇다 丸仁三等二十七圓四十錢 四等二十七圓二十錢 一等白米三十錢

仁川小弛 繼續하야 阪神定期側의 當限準備入注가 잇스나 賣方의 高唱으로 取引이 不捗하고 氣配十錢引한 丸仁三等二十七圓四十錢 四等二十七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七錢

釜山同調 市場貿物三千叺 依然産地의 賣腰가 强硬을 示하고 倉入米가 必需側에 賣出되는 程度로 日本內地側의 取引도 不添하야 活氣가 乏한 場面인 三等二十七圓七十錢 四等二十七圓五十錢、一等白米十一圓八十六錢

大邱不變 奧地는 大農側을 除한外는 거의 所持가 업고 農繁期와 相俟하야 물만한 貿物이 齎來되지안코 實需準備의 小口로 이에 對한 賣方은 僅히 散인 三等二十七圓二十錢 四等二十六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

群山續伸 移植은 大體樂觀이다 一般의 賣惜人氣가 解消인 一方日本內地로부터는 繼續하야 ... 三十五錢

木浦一息 産地出廻는 一巡模樣이오 地場持米側은 淸算期近의 硬氣와 賣惜하나 取引이 不進하야 牌由一息商狀인 丸木多摩二十九圓三十錢 四等二十七圓三十錢 雄町三等二十七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南浦閑散 日本內地側의 注文이 到來하나 所持側의 賣惜人氣가 訂正되지안코 堅調를 示하얏스나 商狀은 자못 閑況을 呈한 ③三等二十七圓五十錢 四等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鎭南浦 入注가 잇서 賣方은 低位賣를 기다리고잇서 商談이 不成 … 七圓七十五錢 四等二十七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堂島前場情報【大阪電話】 賣方 中東側、地場正米側、三品側、東京側、三木、朝鮮側 買方 田中貞、神戶側、台灣側、地場弱氣側、株式側、湖政、來客側、松本

◆朝取期米取組高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天候如何는 잘몰으는今日에 賣方은 安心은하지못할것갓다

金融 七日

◆海外經濟 (6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6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6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米穀 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價入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七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메리야쓰期麥 (6日) [illegible]
◆醬油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豆粕沖價 [illegible]

株式 七日

◆朝取短期 [illegible]
◆鐵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鮮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七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商品 七日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金·銀·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光化門五二八番
振替京城五壹五四番
代金引換販賣에應함 送料先方負擔 地方註文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 黃金町